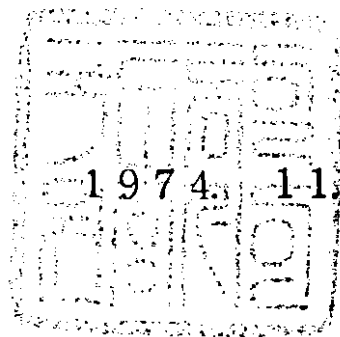




共 産 主 義 者 の 協 商 テ ク ニ ッ 分 析



國 土 統 一 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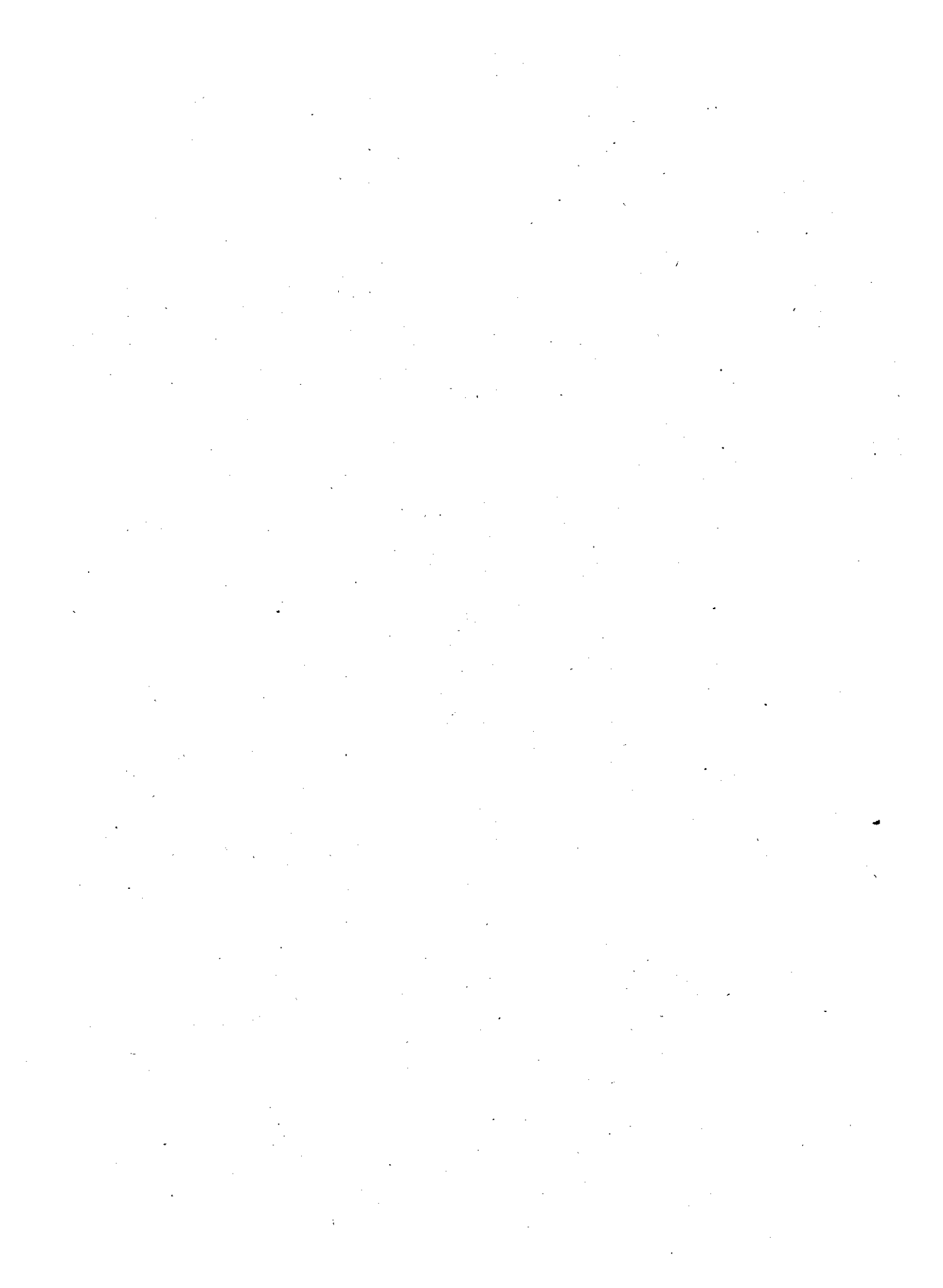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4年度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 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4. 11.

연구기관 : 강 원 대 학
연구책임자 : 김 정 후

目 次

1 . 序 論	1
2 . 蘇聯的 協商方式	3
3 . 中共的 協商方式	21
4 . 北韓的 協商方式	31
5 . 東西的 協商技術比較分析	53
6 . 結 論	61



1. 序 論

「協商」(Negotiation)이란 用語는 一般的으로 合意를 모색하기 위하여 雙方間에 「주고」「받음」으로서 共同問題를 交涉하거나 討論하는 行爲를 뜻한다. 國內法에서는 「協商」이란 「獨立되고 主權을 가진 國家의 資格을 갖춘 代表者들에 依한 採択한 態度, 着手할 行動, 締結한 契約에 관한 共同討論」을 意味한다.

그러나 共產主義者들은 「協商」을 手段에 爲해 戰爭을 遂行하는 하나의 方法으로 간주한다. 어떤 學者는 「協商」이란 共產主義者들에게는 하나의 戰術手段...즉 「위험하고 고도의 기동성을 가지는 敵對作戰」이라고 시사하고 있다.

처음으로 韓國에서 使用된 「南北協商」이란 用語는 1948年 3月 9日 白凡, 金九에 依하여 提議되고 同年 3月 15日에 金日成이 이 를 受諾하여 4月末에 平壤에서 開催된 所謂 南北韓 諸政黨社會團體代表者連席會議를 말한다.

現在 南北間에는 南北으로 떨어진 1. 3천만인산가족의 고통을 해소 시켜주기 위한 「南北赤十字交談」과 南北간의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南北調商委員會」라는 對話가 진행 중이며, 國際情勢로 韓半島안의 平和的統一을 爲한 南北간의 繼續적인 對話를 勸告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의 協商策略은 共產主義者들의 協商概念과 다름없이

共産化統一을 實現한다는 窮極的인 目標에 依해 構想되며 또한 革命的鬭爭의 하나의 形態로 되고 있다.

이와 같은 問題를 앞에 놓고 共産主義者들의 協商테크닉 考察하여 이에 대한 指針을 제시하여 對北 協商研究에 有益하게 活用될 수 있고 또 이 分野에 關心있는 專門家에게 적으나마 貢獻이 되기를 바란다.

2. 蘇聯의 協商 방식

「W. 애버렐·해리만」 駐蘇美國大使는 「알렉시스·톨스토이」로부터 美蘇協商에 있어 사전에 알아두어야 할 寓話 한 토막을 들었다.

「러시아」의 한 農夫가 한 나그네를 맞아드려 술과 음식과 잠 자리를 제공한 다음 하룻날 일찍 일어나 나그네의 목을 찌르고 돈을 훔쳐다 가는 내용이다. 「해리만」이 美·蘇關係의 擴張을 강력히 호소하면서도 이같은 寓話を 상기시킨 이유는 蘇聯人에게는 外國人에 대한 뿌리깊은 疑心이 도사리고 있으며 그같은 疑心은 단시일내에 扞扞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 할수 있다.

協商에 대한 蘇聯人의 世界觀을 구성하는 세가지 根本要素中의 하나가 바로 가같은 疑心과 敵對感이다. 두번째 요소로는 소위 反帝國主義로 불리워지는 階級鬭爭의 現代共產主義理論이다. 「레닌」과 「스탈린」은 과거의 「러시아」의 역사적 사실을 의식적으로 들추어내어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들은 「러시아」革命前의 詩人 「네 크라스프」가 외친 『貧困하면서도 풍요하고 막강하면서도 무능한 나의 조국 「러시아여!」』라는 귀절을 즐겨 引用했다. 「마르크스」主義者들의 國際主義가 絶頂에 달했던 1918年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떠한 대가를 치루어서라도 「러시아」는 비참하고도 無力한 상태를 벗어나야 된다. 진정한 의미의 強力하고도 부유한 國家를 이룩하는 것 - 그것만이 우리들의 공통된 不屈의 決意다』 이점에 있어 「스탈린」은 보다 雄辯的이었다. 1931年 그는 과거 蒙古, 「터키」, 「스웨덴」, 英國, 「프랑스」, 「폴란드」, 日本 등 많은

國家들이 「러시아」를 손쉽게 짓밟고 착취했던 쓰라린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이제 우리는 더이상 짓밟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단호히 선언했다.

「레닌」은 反帝國主義를 논할때마다 『누가 누구를』(Who-Whom)이란 용어를 즐겨 사용했다. 1906년에 발표된 論文가운데서 「레닌」은 『누가 누구를 몰아내느냐 또는 누가 누구를 와해시키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1921년에는 이를 보충설명하여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자가 스스로 파멸하고 蘇聯이 살아 남느냐 또는 資本主義者들이 살아남고 蘇聯이 버림을 받느냐하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蘇聯을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도, 이같은 문제에서 例外일 수 없다고 단정했다. 1919年 「러시아」에 「발터부스」가 창렬했을 때도 「레닌」은 이 理論을 적용, 『이(風)가 社會主義를 누르고 승리하느냐 아니면 社會主義가 이로부터 승리를 쟁취하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었다. 그로부터 10年後 「스탈린」은 이말을 받아 『우리는 「레닌」의 公式에 따라 살고 있다. 즉 누가 이길것이나하는 것이다. 우리가 資本主義를 굴복시키느냐 아니면 資本主義가 우리를 굴복시키느냐 하는것 말이다.』

蘇聯과 協商 「테이블」에 앉아 본 西方 外交官들은 한결같이 『世界는 公敵』이라는 共產主義者들의 확고한 二重的 信念에 대해 증언한다. 『蘇聯은 國家間에 영원한 友好關係는 있을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모든 外國人은 潛在的敵일 뿐이다.』 이것은 「조지·F·케난」駐蘇前美大使의 말이다. 「아르투어·H·던」前大使도 『蘇聯의 外國에 대한 獨斷的 敵對感』을 지적하면서 이것

이 軍縮會談에 있어서도 최대의 저해요인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1968年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蘇聯政府가 발표하는 수많은 聲明을 들을 때마다 그 聲明의 內容으로 보나 형식으로 보나 오만과 두려움의 二重的 複合性을 교묘히 숨기고 있음을 본다.』 또한 오랫동안 對蘇協商 經력을 갖고 있는 「필립·피모슬리」는 「안토니·이든」 前英國外相과 蘇聯外相「V·몰로토프」와의 協商에서 「몰로토프」가 최종순간에 갑자기 태도를 一變함으로써 회담이 결렬되었던 一例를 들고 있다.

요컨대 蘇聯은 外國과의 協商에 있어 다음 6가지의 假定에 立脚한 協商態度를 취하고 있다.

첫째 ; 敵은 교묘할 뿐만 아니라 속임수를 쓴다. 따라서 敵이 최종순간에 결정적인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일시적으로 던져주는 양보를 믿어서는 안된다. 敵이 하는 말의 裏面에 숨은 의도를 일단 疑心해볼 필요가 있다. 1926年 「스탈린」이 말한대로 『「마르크스」主義 勞動者들의 「슬로건」은 말을 신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의 말을 일단 철저히 檢討해 봐야한다……오직 바보들만이 말뿐인 말을 신용한다』 蘇聯外交官 「코발레프」가 저술한 『外交學入門』은 「레닌」 主義者들의 『公開外交』를 권장하면서 協商文書는 公開的으로 그리고 直接表現된 內容外의 것을 包含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 敵의 立場이 너무 확고하다해서 蘇聯의 立場을 離脱하는 言動을 해선 안된다. 蘇聯은 1945年 以後 東歐에 대한 蘇聯의

「헤게모니」가 西方「브르조아」國家들에 의해서도 인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선 蘇聯과 西方側間에 심각한 見解差가 없기 때문에 東歐의 法的地位에 관한 協商을 중대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셋째 ; 蘇聯은 敵과의 根本的인 妥協이 不可能하다고 본다. 「모슬리」가 지적한 대로 蘇聯은 말을 신용치 않으며 다만 말이란 수식적인 陳腐性을 띠고 습관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協商에서 西方側이 어떤 문제에 관해 妥協案을 내놓을 경우 蘇聯側은 당황하거나 냉소적이 될 것이며 상대방이 일척부터 신중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넷째 ; 蘇聯이 추구하는 목적앞에는 倫理나 道德이 없다. 1920年 「레닌」은 말하길 『우리의 道德은 「프로레타리아」의 階級鬭爭으로부터 나온다. 共產主義者들의 道德은 階級鬭爭에 奉仕하기 위한 道德이다』라고 선언했다. 「레닌」은 1年後 다시 이를 보충설명하여 『우리의 道德은 묵은 착취社會를 파괴하고 모든 勞動者들을 「프로레타리아」로 단결시키는데 奉仕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英國의 蘇聯專門家 「버나드·루이스」는 共產主義者들에겐 罪惡滅마위가 存在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섯째 ; 蘇聯은 協商에서 이상 열거한 모든 사항들을 把握하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이를 『自意識』속에 혼연일체가 되도록 해야한다. 自意識은 蘇聯協商家가 갖추어야 할 필수 基本條件이다. 自意識은 『狀況』에 따라 직접 導出되는 것이며 「마르크스·레닌」

主義의 理念에 근거를 둔 것이다. 「마르크스·레닌」主義만이 真理를 把握할 수 있다. 自意識의 反對는 『無意識』으로 이는 共產主義者들에게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敵이 協商에서 蘇聯代表를 굴복시키기 위해 蘇聯代表의 無意識을 이용하려 할 경우 自意識만이 이를 격퇴할 수 있는 強力한 방패가 된다.

여섯째 ; 蘇聯側 協商代表의 머리위에는 언제나 후견인적인 蘇聯 共產黨이 도사리고 있다. 일찍이 「레닌」은 黨優位論을 주장한바 있으나 「스탈린」은 한걸음 더 나아가 黨優位를 명확히 규정했다. 『우리 共產主義者들은 특수한 바탕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특수한 成分으로 構成되었다……黨員이 겪어야 하는 긴장과 모진 풍파를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 것은 아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蘇聯 共產黨의 地位는 굳어져 政府소관인 外交問題까지도 黨의 印齒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같은 現象은 최근 점점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다. 蘇聯의 元老 外交官인 「발레리안·조린」도 蘇聯 外交政策의 수행에 있어 黨이 政府보다 優位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1971年一連의 對西方 外交 協商에서도 黨書記長 「레오니드·브레즈네프」는 政府內에 아무런 공식직위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가장 중요한 해외여행등 協商의 司命塔구실을 했다. 蘇聯代表와 協商하는 것은 곧 蘇聯 共產黨 지도층과 회담하는 것으로 이때문에 協商이 지연되거나 난관에 봉착하는 일이 많다고 西方 外交官들은 지적한다.

이상 열거한 蘇聯側 基本立場으로 비추어보아 蘇聯과의 協商은 論理的으론 不可能할뿐더러 無意味한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남은 問

題는 「레닌」이 말한바 資本主義와 共產主義間的 「무서운 鬪爭」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하는 問題다. 그러나 의구심과 비타협으로 代表되는 蘇聯의 協商態度 한구석에는 제 3의 要素 즉 고도로 發展된 實用主義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레닌」을 비롯한 많은 蘇聯共產主義者들은 「이데올로기」와 理論으로 무장되었다. 「레닌」은 언제나 戰略家인 동시에 戰術家였으며 權力을 잡고 또 유지하기 위해선 때때로 치뤄야 될 희생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레닌」이 죽고나서도 그의 교훈은 후계자들에게 傳授, 適用되어 오고 있다.

蘇聯問題專門家 「네이언·리츠」가 증언하고 있듯이 「레닌」의 『누가 누구를』이란 용어는 항상 누가 누구를 파멸시키느냐는 뜻으로만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누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또는 『누가 누구를 반대하고 있느냐』는등 온전한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것은 協商에서 『후퇴』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우리는 우리자신이 후퇴할 可能性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1922年 「레닌」은 말했다. 한편 「스탈린」은 1927年 中國共產黨의 敗北에 언급하면서 『「마르크스」主義를 고수하는 자단이 항상 敵에 대한 즉각적인 승리를 보장해주는 올바른 政策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탈린」은 그후 1938年 「레닌」의 政策을 설명하면서 『人間은 최후순간에 어떻게 후퇴할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고 附言한다.

후퇴란 全面的勝利를 다짐하고 있는 蘇聯지도자들의 公約에 矛盾되는 개념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리츠」는 共產主義者들이 『後

退』와 『屈服』이라는 말에 커다란 개념상의 差異를 두고 있음을 지적한다. 共產主義者들이 後退할 경우 이는 결코 굴복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두 개념의 엄격한 차이를 갈라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긴 하지만 이 差異는 적어도 軍事專門家 「토마스·울프」가 말하는 『戰略的 對話』를 可能케 해주는 것이다. 戰略的 對話는 겉으로 보기에선 순전히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비밀 접촉을 통해서선 態度를 대폭 轉換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蘇聯의 공식성명에 나타나는 西方側에 對한 人상은 西方側의 戰略과 對立을 세밀히 알고 있는 蘇聯指導者의 人상과 반드시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울프」는 결론 짓는다.

이같은 前題들로 미루어 볼때 蘇聯의 對外協商目的은 『最大』와 『最小』사이를 자유자재로 내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最大目的은 勿論, 「브르조아」帝國主義인 對西方鬭爭에서 全面勝利를 거두는 것이고 最小의 目的은 보다 큰 목표들이 실현될 수 없을 때 蘇聯의 國利만이라도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 最大와 最小의 개념은 蘇聯政府가 발행한 『外交辭典』속에 보다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蘇聯外交는 全世界의 広範圍한 人民大衆들에 대한 同情과 支持에 基礎를 둔다. 蘇聯外交는 帝國主義政府의 침략야욕과 그 야욕을 은폐하기 위한 外交의 策略을 들추어내어 모든 人民들로 하여금 真相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곧이어 다음과 같은 보충설명이 따르고 있다. 『社會主義外交는 伸縮性を 原則으로하여 協調와 合意에 必要한 모든 용의

를 갖추고 있으나 蘇聯이 적용가능한 外交政策原則의 限界를 벗어나진 않는다』 이 辭典의 주장에 따르면 外交란 政治의 一部이기 때문에 科學的 結論에 立脚해야 된다. 그러나 流動的인 實際狀況 속에서 確고한 政治的 目的을 달성키위해선 그같은 科學的 結論은 技術的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廢滅해가는 특수계급』을 위한 外交를 目的으로 하는 「부르조아」外交로선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다. 「코발레프」는 그의 『外交學入門』에서 蘇聯外交文 畵가 2개의 방향 즉 政府와 人民을 指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사실 相異한 두體制間의 外交는 특수한 目的을 두고 충돌할 뿐만 아니라 극히 相異한 協商體制間의 根本的인 對峙를 露呈하는 경우가 많다. 美國「휴스턴」大學의 「조셉·노기」教授는 그같은 实例로서 原子力統制問題를 논의키 위해 蘇聯과 西方國家들이 「유엔」 原子力委員會에서 자리를 같이했던 당시를 회고한다. 「노기」教授의 보고서는 蘇聯이 다음 5가지 目的을 達成키 위해 회담에 임했던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첫째 ; 표면상으로 내색하지 않고 美側의 原子力에 관한 提議를 거부한다.

둘째 ; 蘇聯의 政策과 全世界人民의 念願을 연결시킨다.

셋째 ; 西方「블럭」 특히 美國의 政策이 侵略的이라는 점을 널리 알린다.

넷째 ; 美國이 原子力優位를 政治的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예방한다.

다섯째 ; 協商에선 지연작전을 적용한다.

또 다른 例로 최근들어 蘇聯이 西獨, 中東등과 대담한 協商을 벌이는가하면 「유럽」 安保問題등을 거론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샤피로」는 이같은 蘇聯의 적극적 움직임이 西方側으로부터의 양보를 기대함과 동시에 美國의 意向을 떠보기위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울프」는 이같은 一連의 協商을 통해 蘇聯이 상대방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4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蘇聯의 戰略的核制御力을 두려워할 것이며 당치도않게 和解「무드」를 퍼뜨리려고 하지말라. 둘째 어떠한 행동도 蘇聯의 견고한 지위를 허물 수 없음을 깨닫고 西方側은 世界도처의 戰略基地로부터 철수함이 마땅하다. 셋째 美國은 蘇聯의 核先制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울프」는 마지막 다섯번째 「메시지」를 蘇聯은 緊張과 和解路線중 어느것이 더 蘇聯의 利益에 부합되는가를 아직 확실히 結論짓지 못했다는 不確定性을 상대방들에게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요컨대 궁극적 목표는 紛争에 있지 않으며 協商의 성격에 따라선 伸縮性이 있을수도 있어 蘇聯의 입장이 그렇게 전적으로 완고하게 굳어진 것만은아니라는 것이다. 「샤피로」는 이같은 行動類型이 아무런 「매스터·플랜」 없는 단순히 『不斷한 움직임』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풀이한다. 이같은 태도는 協商에 있어 可能한 많은 選擇의 기회를 포착하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결정하려는 입장이다. 『戰爭』과 『政治』는 같이 쓰여질 수 있는 交換概念이라는 「클라우세비츠」의 古典的理論을 정리하여 「리츠」는 이것을 『協

商에 의한 戰爭』이라고 부른다. 요컨대 「마르크스」의 辯證法을 적용하여 伸縮性과 強硬論을 동시에 자유롭게 구사하는 것이 蘇聯의 協商戰略 및 전술의 根幹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蘇聯의 協商戰略과 전술이 어떠한지 살펴본다.

「蘇聯」은 協商術에 서툰자가 아니며 숙련되고 효과적인 協商技巧에 낯선 국가도 아니다. 「러시아」의 政府特使들은 일찍부터 東方郡主들과 접촉했으며 16세기까지는 西歐와도 協商했다.

西方側은 懷疑와 遲延, 固執등 전통적인 「러시아」의 장애물과 씨름해야 했다. 「러시아」가 과거 1917년처럼 外交的 使命을 확신하고 外交的 힘을 인식하여 다시금 「브르조아」社會에 대한 확고한 反對의사를 발표하고 西方側이 蘇聯과의 協商이 정말로 까다롭다는 것을 인식한 것은 2차大戰이 끝난 뒤였다.

지금까지 西方側은 蘇聯의 協商技巧가 예상했던바 상당히 훌륭한 構想을 갖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경험해왔다. 아직도 때때로 갑작스러운 혼란과 혁신 또는 돌발적 위기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예상할 수가 있다. 蘇聯의 協商者들과 상대한 사람들의 논평과 懷古談을 간추려보면 蘇聯의 外交수법의 특징을 대충 알아낼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을 종합하면 蘇聯의 協商方法을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첫째: 議題

蘇聯은 공식절차가 시작되기전에라도 議題를 확정하려 한다. 西方側은 議題를 무엇으로하고 그것을 어떻게 기술하느냐는 것이 對 蘇聯協商자체의 상당부분이 되고 있음을 여러번 발견했다.

「모슬리」는 蘇聯의 1946년 「유고」 「이탈리아」 國境問題에 관한 議題의 文案을 둘러싸고 수 주일동안 어떻게 나왔는지를 상세히 기술했다. 당시 問題가 된 것은 「트리에스트」 주변의 「이탈리아」 人 少数派에 어떤 比重을 둘 것인가 하는 것이었는데 英·美軍의 「트리에스트」 지역 개입때문에 蘇聯이 결국 양보하여 協商이 시작되었다고 「모슬리」는 지적하였다. 한편 「크라이그」씨는 蘇聯이 1929년 英國과의 國交協商時 그들의 議題를 고수하여 이익을 보았음을 상기시킨다. 美·蘇戰略武器制限會談에서 蘇聯은 이 會談을 防禦用武器에만 국한시킬것을 주장한 반면 美國은 議題에 攻擊用과 防禦用武器를 포함시키려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둘째 ; 原則合意

이 戰術은 協商者들을 까다로운 細部 문제에까지 파고들게 하기 위한 것으로 蘇聯이 그들의 外交技巧중 가장 신뢰하는 것이다. 대표적 예로서는 1945년 「폴란드」의 聯立政府에 관한 「알타」 협정인데 蘇聯은 「폴란드」의 非共產 多數에게 어느정도 광범위한 政治的 자유를 보장한 다음 그후 수개월동안에 당초 협정에 90%를 수정하거나 아예 없애버리는데 성공했다고 「모슬리」는 기술했다.

「단·애치슨」前美國務長官은 1955년 「제네바」頂上會談을 상기하면서 이 회담에 임한 蘇聯의 目的은 추가로 적극적인 攻勢가 中東에서 시작될수 있게끔 西方에 善意와 解弛感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았다.

1971년 西獨은 獨·蘇不可侵조약과 4大國「베를린」조약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蘇聯과 합의했다고 간주했으나 「안드레이·그로미로」
蘇聯外相은 그해 「유엔」의 非公式討議에서 蘇聯政府는 西獨이 4大
國 「베를린」협정과는 상관없이 獨·蘇不可侵조약을 비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셋째 ; 協商「케이스」

蘇聯協商者들에게 時間은 표면상 전혀 問題가 되지않는다.
「아더·딘」은 「제네바」회담에서 「쿠즈네초프」蘇聯副外相이 토의안
건에 적합하던, 않던간에 共產主義理論의 여러특징을 장시간에 걸쳐
유쾌하게 토의하기를 좋아했음을 상기시켰다. 「애치슨」은 이러한 遲
延戰術의 주목적이 단순히 상대방을 허약케하고 士氣를 저하시키려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蘇聯과 일부 剩餘戰爭資産처분에 합의하는 과
정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던 協商을 끝낼 길이 발견되었을 때
를 하나의 成果로 간주했다고 슬회한다.

蘇聯의 이같은 진술의 한가지 특징은 상대측의 일부 発言을 붙잡
고 늘어져서 그것을 다른 目的들에 휘말려 들게하는 경향이다. 「딘」
은 이러한 例를 두가지 를었다. 즉 核實驗禁止條約이 예비協商단계
에 있던 1959년 當時 英國의 「맥밀린」首相은 「호루시초프」蘇聯
首相에게 3회나 같은 식으로 現場調査回數를 규정할것을 제의 했는데
「호루시초프」는 즉각 現場調査回數를 3회로 하자고하면서 그때부터
다른문제를 토의하기를 거부했다.

그후 1962년 蘇聯은 美國과 그러한 제의를 하지않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1년에 2, 3회의 現場調査를 실시할 것을 美國이 제의한

양 美國이 실제로는 제외하지 않은 제안을 전반적인 협정의 기초로 삼았다. 「나토」(北大西洋條約機構) 前事務總長 「더그. 스티커」는 蘇聯이 사전에 반드시 관철 시켜야 하는 항목명단을 준비하여 協商에 임하는 것 같으며 그들은 한가지 항목이 그들에 만족하면 이어 다음 항목을 관철시키려 들뿐 그들이 이전에 말했던 망각해 버린다고 말했다.

넷째 ; 「이미지」 投射

協商회의를 公開外交의 도구로 이용함으로써 協商의 實質問題와 관계가 없는 상당한 效果發生을 노린다. 蘇聯은 이 方面에서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노력을 기울인다.

(1) 그들은 蘇聯만이 아닌 全社會主義를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마르크스」와 「엔겔스」는 「게르만. 이데올로기」에서 現代世界는 점점 더 觀念的「아이디어」가 지배하고 있으며 革命계급은 모든 社會 구성원의 公同이익으로서 그의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라이그」는 이러한 普遍化戰術이 방관적인 제 3 국가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2) 그들의 막강한 힘을 투사한다. 「케난」은 蘇聯의 外交技法이 전반적으로 東洋의 그것과 같으며 상대방이 蘇聯의 힘을 적용하는 정확한 경로와 수단에 관해 확실히 알지못하게 하면서 상대방에게 蘇聯의 무서운 힘을 감동시켜 蘇聯의 모든 욕망과 견해를 특히 존중하여 고려토록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3) 그와동시에 冷笑的이고 파렴치한 그의 상대방들과 대조적으로 蘇聯은 德이 크다는 것을 강조한다. 「크라이그」는 특히 「흐루시초프」가 東西協定에서 이러한 주장을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던」은 蘇聯자신의 正直함에 대한 그들의 아같은 거의 종교적인 확신은 사태의 전반적인 추세가 실제로는 그들에게 不利하지않나하는 깊은 의심에서 나오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다섯째 : 反美国主義

蘇聯은 美国이 國際會議에서 다른國家의 행동을 지시한다고 누누히 주장하고있다. 이것은 蘇聯이 西歐國家들간의 막연하고 비공식적인 의사소통 양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적인 이유때문 이라고 「모슬리」는 말한다. 그것은 蘇聯을 당황케하여 그들이 美国의 위압政治를 비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사피로」는 蘇聯의 反美主義가 모든 共産黨을 한데 연결하는 主要 羈絆의 하나이며 실제로 그것은 다른 여러 國家의 환심을 아울러 사고 있다고 말한다.

여섯째 : 協商行動

蘇聯協商者들의 개인적 행동은 올바르고 때로는 정중하기도 하지만 거친 태도가 전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고있다.

「라이테스」는 이것을 防衛機制로 보았다. 즉 위협적인 敵에 口頭충격을 가함으로써 자신의 힘과 決意에 대한 敵의 판단을 과장토록 하여 敵자신의 基盤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그 자신 勞組鬭爭의 「베테란」이었던 「에른스트·베빈」 前英國 外相은 1947년 外相會議가 끝난뒤 『우리나라가 오늘 下午처럼 모욕』

과 옥설을 받게 될 것으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호르시초프」의 長廣舌은 아직껏 西方측에서 잘 기억되고 있다. 「호르시초프」는 1959년 獨逸에 관한 미묘한 協商이 벌어진 「제네바」外相會議를 앞두고 「알바니아」의 「티라나」에서 연설하는 가운데 「아테나워」西獨首相을 『보따리 商人』이라 부르고 「아테나워」와 「폴·브렌타노」西獨外相을 가리켜 小商人輩이라고 말했다.

蘇聯의 外交活動에 관한 專門家인 史家 「토마스·도노반」은 西方측 協商者들과 상대한 蘇聯外交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막심·리트비노프」가 훈련하고 가르킨 旧蘇聯 外交官 대부분은 없어지고 그들의 직책은 직업僉員과 정보원이 차지한 반면 그들이외의 직업外交官은 「시베리아」로 유배되었다는 것이다

2次大戦後 職業外交官은 当局의 귀(耳)가 됨에 있어 정보기관과 경쟁할 수 없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蘇聯이 정보활동에 몰두함으로써 旧式外交官들이 外交界의 일반규칙을 이행하거나 또는 他國의 생활양식에 대한 근본적인 理解를 모색하는것 조차도 어렵게 했다. 게다가 西方측 協商者들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살펴보면 蘇聯의 協商者들은 때때로 本國上官의 대변자로서 그가 위임받은 것을 協商을 하는것이 아니라 西方측으로 부터 나중에 더 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蘇聯도 「양보」한다는 구실로 이용할 과격한 발언을 하는것 이었다.

이러한 要素로부터 蘇聯의 協商 「모델」을 發見할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것이 사실과 같고 蘇聯의 協商目的이 완전히 把握된다

면 西方과의 協商은 대략 다음과 같은 양상이 될 것이다.

○ 蘇聯의 協商상대자는 蘇聯이 고르고 지정한 場所와 時期에 나오게 될 것이다.

○ 蘇聯의 協商者들은 약간의 토의 끝에 채택될 會議議題를 發表할 것이다.

○ 蘇聯側은 協商상대방에 대한 일련의 비난을 가할 것이며 이에 대한 反駁은 효과가 없게 될 것이다.

○ 共產主義와 非共產社會「메디아」에 會議진행이 최대한으로 공표될 것이다.

○ 蘇聯은 그의 實質的 要求를 발표할 것이며 西方側은 약간만 수정한 채 결국 그들의 要求를 수락할 것이다.

○ 蘇聯은 자기의 결정에 따라 合意成果가 없게 할 선택권과 會議節次를 遲延시키거나 종결시킬 선택권을 保有한다.

호킨스 蘇聯의 協商「모델」에는 合理性이 있으나 그것은 西方의 合理性概念과는 모순되고 다른 포괄적이며 폭넓은 誤差내에서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분명한 점은 두가지 추가적 사실이다. 즉 蘇聯지도자들은 協商을 통해 利得도 얻는 반면 잃은 것도 있었다는 점이다. 「프레드. 찰스. 이클레」는 『蘇聯協商者들이 얼마나 영리한가』를 살펴보면서 『西方側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蘇聯協商者들은 날카롭기 보다는 대담하고 교활하기 보다는 뻔뻔스럽다』는 결론을 얻었다. 즉 蘇聯協商者들은 「탈리란드」의 기교를 갖고있지 못하며 「마키아 벨리」의 훌륭한 제자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클레」는 蘇聯이

주요한 協商에서 패배자가 된 다음의 5가지 實例를 들었다.

첫째 ; 「몰로토프」가 직접적이건 「유엔」을 통해서건간에 「마샬」계획에 蘇聯을 포함 시키지 못한 것은 美國과 「유럽」의 戰後復興을 위한 분명한 진로를 다짐했다. 「스탈린」이 동의한뒤 「몰로토프」가 遲延戰術로 뒤따랐던 이 原則合意는 西方國家들을 한대 뭉치게하고 蘇聯을 困境에 빠뜨렸다.

둘째 ; 「호루시초프」는 1957년 西方側에게 西베를린에서 물러나도록 최후통첩을 발함으로써 실수를 범했다. 이 통첩은 그가 武力으로 뒷받침할 수 없었다. 『歷史는 「호루시초프」처럼 그의 權力을 남용하여 약하게 한 高位政治家의 몇몇 先例를 자비히 말해준다』고 「이클레」는 논평한다.

셋째 ; 「호루시초프」는 또한 1960년 東獨을 主權國家로 인정할 講和條約에 걸었던 希望을 깨어버렸다. 그는 美國이 U2機비행에 화를 내고 60년 5월 美蘇頂上회담을 결렬시킴으로써 美國으로 부터 양보를 얻어낼 좋은 機會를 잃었던 것이다.

넷째 ; 蘇聯은 1962년 많은 美國人들이 美國을 自滅시키는 것으로 믿었던 美國의 核實驗을 중지케 할수 있었던 機會를 놓쳤다.

蘇聯은 당시 「케네디」美國 大統領의 즉각적인 유예期間 설정 제의를 거부함으로써 非核國家들에 대한 중대한 선전적 利得을 잃었을 뿐더러 美國의 核實驗을 금지시키지도 못했다.

다섯째 ; 蘇聯은 1947년 「자르」지역을 누가 차지하느냐 하는 문제

에 자기 편에 넘어갔다. 「스탈린」은 「프랑스」가 「자르」지역을 차지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으나 다른문제에 관해 「프랑스」로부터 확취적인 양보를 고집한 결과 「자르」지역은 獨逸에게 돌아갔고 이것은 「스탈린」이 적극 막으려했던 獨・仏和解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요컨대 『蘇聯의 숙련되고 영리한 協商「스타일」은 神話임이 증명된셈』이라고 「이클레」는 말한다. 그는『그러나 蘇聯의 協商失敗의 대부분은 西方側의 약점을 이용하지 못한데 불과하므로 西方側 外交官들은 이러한 蘇聯의 失手に 관해 지나친 낙관은 하지말아야 할것』이라고 경고한다. 게다가 蘇聯은 그들의 失手に 지나치게 빈민을 하지않은것이 분명하며 그러한 失手を 冒險의 代價로 받아들이고 있다. 어떤 점에서는 蘇聯의 協商의 일환으로서의 모험 높은 도박이 시작되어 協商을 緊張완화의 수단으로부터 緊張폭발시키는 수단으로 전환시킬 수는 있는 것이다.

3. 中共의 協商 방식

1953년에 「아더 H. 딘」大使가 美国代表로 韓国休戰協商을 인수 하러 板門店에 도착했을 때 그의 선임자인 「헨리·해리슨」장군은 「共產主義者들과 어떻게 協商을 하는가?」라는 제목을 쓴 봉투하나를 주었는데 그 봉투속에서는 「하지 말라(Don't)」라는 단어 1개만을 적은 종이 한장이 나왔다. 이 「유머」는 中國共產主義者를 直接 경험한 美國人들 간에 널리 퍼지고 있던 감정을 반영하는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板門店の 고참 美軍代表였던 「C. 터너·조이」는 中共의 協商에의 접근 방법을 美國人들의 方法과 대조시키면서 野球에 비유해 설명했다. 「美國人들은 우선 경기를 할 장소와 경기 개시시간 그리고 심판의 선정문제부터 이야기 한다. 그러나 中共人들은 경기를 上海에서 밤에 열어야 하며 심판도 中共人 관리여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中共人들이 이같은 反應으로 나오는 그들의 中共教理와 行動에는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中共의 協商類型은 그 頑固性에 있어 蘇聯을 뺀 정도 「마르크스-레닌」主義的 土臺에 바탕을 두고 있다. 中共軍의 「解放軍日報」는 1966年 7月 「相衡하는 世界の 두 見解間에 날카로운 충돌에 있어서는 너도 나를 분쇄하지 못하고 나도 너를 분쇄하지 못한다」라고 선언했다. 또한 中共軍 고위 장교들이 읽는 61年の 한 秘密軍報에는 「非讓步態度는 美國 例에 있지 中共例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前国防相 林彪는 그의 유명한 1965年 宣言인 「人民戰爭勝利萬歲」에서 「많은 國家의 人民들이 美帝와 그 추종자들에게 대항하는 무기로써 人民戰爭을 체득하고 이용함이 절실히 必要해 졌다」고 역설했다. 이같은 敵對的인 印象은 蘇聯의 성명보다도 약간 더한 신중성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 선언은 「로켓」戰보다도 「解放戰爭」을 강조하고 있는 데 이것은 國家간의 經濟力 및 軍力의 차이를 그대로 반영해 준다. 그러나 蘇聯 文헌에서 인용될 수 있는 「레닌-스탈린」主義의 主容의 살마리 ("Who-Whom" thread.)가 오해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中共의 協商類型에는 中國人들이 옛날에 변방의 「蛮族」을 대하던 때와 똑같은 의욕이 뿌리 깊이 박혀 있다. 「캐나다」의 신문기자 「찰스·테일러」는 中國皇帝에게 바쳐진 1844年の 한 청원서를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더우기 다양한 蛮族들이 우리들과 調和를 이루어 平和롭게 살고자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일정한 잔치를 베풀어 친절히 대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교류함에 있어 너무나 지나치게 속을 털어 놓은 관계의 수립을 삼가야 합니다.

帝國主義와 階級의 敵을 보는 그들의 「마르크스-레닌-毛澤東」主義 見解 밑바닥에는 傳統的인 中國의 外國人憎惡症과 中國人優越意識이 거의 그대로 깔려 있다. 「테일러」는 1966년에 外交官들은 설사 그들이 「프랑스」나 英國같은 「友好」國의 外交官일지라도 여전히 「蛮族」으로 간주되어 그같은 대접을 받고 있다고 보

도 했다. 中共에서는 外國文化使節團이나 同僚 「마르크스」主義者들이 外交官들보다 훨씬 중요시되고 있고 또 더욱 따뜻한 환영을 받는다. 北京에는 外國人들이 많이 살고 있으나 그들의 생활 태두리는 그들의 거처와 해변 휴양지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발뺨을 하고 「고립된」 존재로서의 中共의 모습은 이외에 또 다른 두가지 상황에 의해 더욱 부각되어 왔다. 그 첫째는 中共이 창건된 이후 지난 25년간을 「유엔」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中共이 「유엔」에 不參한 가장 큰 이유는 中共을 계속 「유엔」밖에 고립시켜 두려는 美國의 政策에 관해 수락될 수 있는 조건으로 「유엔」가입을 고려할 것을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이다. 둘째는 蘇聯이 보여주고 있는 대조적인 「이미지」 때문이다. 「스탈린」 「브레즈네프」-「코쉬긴」의 蘇聯은 적어도 의모로는 世界關係의 전면 참여자로 발전해가고 있으나 毛澤東의 中共黨과 政權은 때로는 고의적으로 도전 意識을 퍼뜨리었다. 작년 까지도 蘇聯은 그만큼 더 「理性的인」 共產主義者를 같았고 中共은 그만큼 더 까다로운 존재로 보였다.

사실과 환상간의 간격이 그렇게 큰 때는 거의 없었다. 中共은 蘇聯 만능이나 오렌눔안을 그들의 敵對者들과 協商해 왔다. 그들이 協商을 하고 또 協商에서 재주를 피워야 할 必要性은 부분적으로는 中共黨이 창건된후 거의 20년동안 中共이 中國本土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훨씬 더 절박했었다. 또한 1949년 中國本土를 장악했을 때에도 그들의 힘이 아직 약했었다는 것도 그 부능적인 이유중의 하나이다.

記錄은 대부분이 냉혹했다기 보다는 효과적이었던 그들의 수세기 이상의 協商을 반영해 주고 있다. 幼年 中共黨은 1920年代初에 蘇聯특사 「아브람·조페」와 「미하엘·보로딘」의 조언에 따라 蔣介石國民黨政府와 國共合作에 들어갔다. 蔣介石은 1927년에 合作을 꾀으며 이어 장기간의 「게릴라」戰이 뒤따랐다. 1936년에 國民黨과 共產黨은 日本 侵略에 聯合戰線을 펴기 위해 다시 西安에서 協商을 하여 임시 變통의 타협을 이룩했다. 새 國共合作도 兩側間의 敵對感情을 태소래 주진 않았다. 그래서 1947년에 美國特使 「조지·C·마샬」은 다시 兩側이 會談을 갖도록 했다. 그러나 毛澤東은 끝까지 蔣介石과 싸우기로 결심했던 것이며 「마샬」의 중개 노력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 후 政權을 장악한 中共黨은 그들이 「戰鬪와 會談, 會談과 戰鬪」를 바탕으로 하는 毛澤東戰略의 有能한 실천자임을 입증했다. 그들은 韓國戰에서 勝利를 얻을 수 있을 뿐더러 美國의 核武器使用 可能性에 직면하게 되자 開城과 板門店의 協商「테이블」에 나올것에 同意했다. 그들은 거기에서 다른 手段을 통한 戰爭을 수 령했다. 「랜드」財團(RAND Corporation)의 연구는 「프랑스」를 상대로 한 印度支那戰爭을 1954년에 「제네바」의 協商으로 끌고가기로 한 그들의 決定 내막을 잘 말해 주고 있다. 그들은 「제네바」에서 戰爭을 外交戰術로 대치했던 것이다. 中共의 目的은 蘇聯의 개입을 막고 協商을 벌리는 國際會談에서 自國을 強大國으로 등장시키며 「越盟」이 自身の 영향권속에 있는 그 지역에

서 무서운 勢力으로 등장하는 것을 막아 「平和共存」理念을 구가함으로써 기타 「아시아」國家들 속에 自身の 地位를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中共이 주장하고 지원했던 印支戰의 不完全한 解決은 中共의 이 같은 目的을 能率적으로 추구케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中共의 협상수완은 1년 후 「반동」會議에서 印度首相 「네루」 및 기타 「아시아」 지도자들과 平和共存 5原則을 협상할 때 다시 입증되었다. 같은 해 中共協商代表들은 中共에 억류된 美國人 포로에 관한 흥정을 하러 「제네바」로 갔다. 「제네바」會談의 美國人 동역이었던 「로버트 B. 에크발」大領은 中共人들은 자기들이 美國人과 더불어 調和를 중대 시킴에 있어 通商禁止 및 文化交流와 같은 問題들의 解決을 志向하며 결국 事實상의 승인은 물론 法的인 承認도 가져 올 수 있는 外相級會談에 까지도 달하려 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썼다.

中共人들은 또한 逆境에서는 이를 대면 金門島와 馬祖島등의 近海島에 관한 1958년의 危機가 勝利로 解決될 수 없는 때와 같은 경우는 協商에 호소할 줄도 알았다. 또한 「랜드」전분가인 「알리스·렝리시에」는 美國이 이들 島嶼의 軍事的인 장악에 반대할 태세이고 蘇聯도 美國을 봉쇄키 위해 戰爭으로 들어갈 생각이 없음이 분명해지자 周恩來는 교착 상태에 빠진 美·中共間의 「바르샤바」大使會談을 다시 열자고 제의했던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와 동시에 國防相 彭德懷는 방송을 통해 國民黨에 이 島嶼問題의 平和的인 解決을 협상하자고 제안했다.

이것은 中共協商類型의 다른 쪽 局面이다. 그것은 蘇聯類型과 유사한 일종의 實用主義를 반영한다. 1940년에 毛澤東은 「우리는 적절한 순간에 멈추어서서 이 特殊한 싸움을 중지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先導的 役割을 통해 敵과의 단합을 모색하고.... 그들과 平和協定을 체결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는 1945년에는 「資本主義 및 社會主義國家들을 타협이 利益이 될 것이므로 여러 國際問題에 관해 아직도 타협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1946년에는 「타협은 平和的인 協商을 통한 合意에의 도달을 뜻한다」라고 진술했다. 앞서 언급한 1961년의 秘密軍報는 「西方과의 協商可能性」에 관해 말하면서 社會主義國家들은 帝國主義國家들과의 일정한 協商에 참여할 必要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秘密軍報는 이어 일정한 합의가 가능해지자 「協商은 反帝鬪爭의 한 形態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54년 「제네바」會談의 印度代表인 「아디·랄」은 「中共教理에 따르면 國際問題에는 協商을 통해 타협이 이루어지는 약간의 영역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見解를 견지했다.

예컨대 中共의 協商戰略과 戰術은 教條主義에서 實用主義에 이르기 까지 가지각색이다. 「랄」은 54년의 「제네바」會談에서 「中共外交官은 대체로 매력있고 민감하고, 好意的이며 심지어는 접근 가능 인물이란 것」을 알았다. 「랄」은 바로 中共外交官이 그의 敵對者들에게는 것처럼 자주, 것처럼 영뿡하게 행동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集團協商을 빌리는 그들의 傾向을 인용했다. 바로 그것은 信賴性 있는 協商者들간에 高度의 和解를 건설하는 데는 바람직

한 것이 아니라고 그는 주장했다. 「랄」은 또 이렇게 전하고 있다. 「中共과의 關係가 아직도 좋았을 때 「텔리」의 中共大使는 그의 無關心때문에 全公使長들 중에서 가장 소외 당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상의 행동이므로 결코 國際問題에 있어서의 그들 태도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美國인들이 직접 대면을 통해 경험하고 느낀 바는 이와 약간 다르다. 中共人들은 포로에 관한 「제네바」協商에 대해서는 事務的이었다고 「에크발」은 말한다. 그리고 일은 대체로 순조로왔다는 것이다. 이 協商에 美國代表로 나갔던 「U·악렉시스·존슨」大使는 會議場의 非形式的인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의자를 반원형으로 배열했는데 中共代表들이 會議室을 둘로 갈라 놓은 對座形으로 의자를 다시 배치해 놓았다고 보고했다. 「아더·딘」의 會談은 그보다 훨씬 더 소란스러웠다. 그는 板門店에서 1971년에 「유엔」 駐在 中共 제1대 代表가 된 「黃華」를 마주보고 앉았다. 「딘」은 1966년에 「黃華」가 「늘 나를 帝國主義 강패, 범죄자, 강도, 유리창, 도둑, 죽은사람 눈에서 잔돈을 훔쳐내는 좀도둑, 혈통없는 잡놈이라고 불렀다」고 지난날을 회상했다. 「黃華」는 「李承晚」 韓國大統領 「아이젠 하워」美國大統領 「텔레스」美國 務長官을 殺人者라고 비난하고 나서 「딘」에게는 「손에 피칠을 하고 시궁창의 더러운 쓰레기 속에 누어있는 殺人魔」라는 등의 욕을 퍼부었다 한다.

「캐네스 T·영」은 板門店과 「제네바」에서의 經驗을 토대로 中共人들의 協商遂行에 대한 포괄적인 分析內容을 제시했다.

요컨대 그의 分析項目은 中共類型에 대한 보다 깊은 통찰의 한 예를 제시해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 「中共協商者는 그 무엇보다도 「이데올로지스트」이다. 따라서 그의 協商에 대한 견해는 美國協商者들과 판이하게 다르고 심지어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敵對的인 태도를 취한다.

둘째 : 「中共의 政策決定者들은 「미니·맥시」동시추구자들 (Min-Max / Operators)... 그들은 약간의 전술적인 직접적 利益을 얻으려는 최소한의 바탕에서 뿐만 아니라 이와 동시에 美國政府로부터 중대양보를 얻어 내려는 최소한의 장기적인 목표에서 美國과 흥정을 한다. 」

셋째 : 냉혹한 「적대적 흥정」과 中共이 어떤 合意에 도달에 관심을 보이는 양보적인 「집중적 흥정」은 「協商의 2重의 概念」을 구성한다.

넷째 : 접촉은 유지되어야 하나 合意가 모색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意圖 소통이 지극히 까다롭다」. 「1956년에 中共協商者들은 교묘하게 協商의 「이니셔티브」를 言論이나 文化分野의 접촉으로 전환했다. ... 周恩來는 그당시 「덜레스」가 기자들에게 관한 共同合意를 위한 協商에 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美國輿論의 압력을 利用했다」고 하는 中共의 선전을 美國政府는 이를 「공갈 행위」라고 낙인 찍고 물러나 버려 協商은 깨지고 말았다.

다섯째 : 잠정적인 폭발적 사태를 계속 통제하거나 보다 公式的

인 동정방법을 준비하기 위해 中共의 行動을 敵對國의 行動과의 일적선상에 배열하는 데는 「默示策」이 利用된다. 金門, 馬祖島 事件은 前者의 例이며 1962년에 迅速한 「라오스」타협을 가져온 大使級會談에서 交信은 後者의 事例이다.

中共의 協商類型은 基本的으로는 蘇聯것과 유사하지만 그보다 약간 非合理的이며 앞으로 많은 變化를 受할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 中共은 불과 최근에서야 「유엔」에 가입했을 뿐만 아니라 둘째, 美國과의 關係도 최근에 와서야 巨步를 내 디뎠고, 셋째, 中共指導者들은 世界介入擴大計劃을 準備中에 있음이 分明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外部 世界와의 보다 密接하고 보다 인습적인 接觸을 모색함에 있어 많은 미래결이 問題를 갖고 있다. 이 問題는 바로 全世界가 그 解答이 어떤 것일까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런 問題들이다. 中共의 「이데올로기」의 갈날이 더욱 傳統的인 活動으로 점점 더 날카로워 질 것인가 아니면 무더어 질 것인가? 中共은 여러나라 政府와의 自身の 거래와 國內에서의 人民戰爭의 추진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中共의 美國과의 協商은 中共과 蘇聯간의 균열에 어떠한 影響을 及할 것인가? 中共의 世界的인 役割이 中共의 國內政治 및 經濟問題에 어떤 結果를 가져올 것인가?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國共合作過程에서의 보인 代表的인 戰術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議題 設定에 있어서 主要問題는 各條項에 分散시켜 相對側의 警戒심을 緩和시킬 것이다.

- (2) 讓步할 제스처만 쓰고 實際的으로는 一寸도 讓步치 않을 것이다.
- (3) 提示한 要求條件이 合議點에 到達할 것 같으면 다시 同一한 提案을 追加 提議할 것이다.
- (4) 主張이 좌절될 때 會談決裂도 不辭한다는 方法으로 會談을 主導, 遲延戰術을 合理化, 宣傳效果를 增大할 것이다.
- (5) 根本問題 協議를 遲延시키고 주요 問題로서는 棄避하면서 부수적 效果를 극대화할 것이다.
- (6) 協商과 더불어 心理戰을 병행할 것이다. 心理戰의 類型은 無限으로 時間을 活用하여 負擔感을 發動하도록 하는 時間上의 心理戰과 直接 接觸이 不可能하면 間接 接觸으로 親知를 통한 說服, 威脅, 包摂 등으로 相對를 包圍, 威圧感을 주며, 對象者의 執務를 妨害 또는 방조하고 無限定의 空間을 活用하여 包摂하는 空間上의 心理戰으로 구분될 것이다.

4. 北 韓 的 協 商 方 式

南·北協商의 境遇에 있어서는 몇가지 特殊한 事情이 考慮되어야 한다.

即 韓半島의 分斷이 当初 戰勝國 相互間의 利害關係를 代弁한 것이 있으나 分斷 28年의 韓半島情勢와 密着되면서 동시에 对内構造上 理念과 思想, 體制와 利度등 諸分野에 걸쳐 融和될 수 없는 異質性을 促進시켜 왔다. 이러한 对内外的 狀況發展은 諸勢力間의 生存權을 不可避的으로 相互 認定해야 하는 段階에 突入했음에도 韓民族은 마땅히 再統合되어야 한다는 否定할 수 없는 名分 때문에 政治生態自体가 拒否作用을 強要 當하는 結果로 되고 있다.

이러한 點에서 北韓은 한편으로 自己擁護를 위한 現實的 要請과 다른 한편으로는 自己 主導下의 民族再統合實現을 現實的 課題로 그리고 時代的 使命으로 提起함으로써 諸般 協商條件은 他方의 吸收라는 側面이 強하게 作用하고 있다.

換言하면 對內的인 階級鬭爭路線과 國際的인 所謂 民族解放鬭爭路線에 依하여 協商戰略이 展開되며 이는 그 時期마다 造成되는 情勢趨勢에 따라 戰術的 次元을 달리 하고 있다.

北韓勞動黨規約 前文에 提示된 黨의 當面目的과 最終的인 目標은 共產體制의 樹立을 規定하고 있으며 同時에 이러한 目的을 遂行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路線을 提示했다. 「朝鮮勞動黨은 南·北 朝鮮의 廣範한 人民大衆을 自己의 周圍에 튼튼히 團結시키며 勞農

同盟을 基礎로 한 全朝鮮의 各界各種 愛國的 民主力量들과의 統一 戰線을 強化함으로써 우리나라 南半部를 美帝國主義 侵略者들의 強 占과 그 走狗들의 反動統治로 부터 解放하고 民主主義的 基礎 위 에서 祖國의 完全한 統一을 達成하기 위하여 鬭爭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綱領的 行動方策은 外形上으로 協商을 拒否하는 強硬한 鬭爭的 立場을 나타내고 있으나 共產化統一을 實現하기 위한 戰術 的 次元에서의 協商을 전혀 排除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協商肯 定的 觀點에서 볼때 北韓勞動黨規約에서 提示한 行動綱領은 協商을 進行시킴에 있어서 그 對象과 條件의 制約性을 賦與하고 있다.

또한 北韓의 金日成은 統一을 實現하는 方便을 두가지 側面에서 提示했는데 그 하나는 戰爭의 手段에 依存하는 極端的인 힘의 對 決에서의 優位性和 다른 하나는 平和的 手段에 依存하는 이른바 政治的 野合可能性을前前提로 한 共產化 革命의 推進이다.

政治的 野合을 實現하기 위해서는 基本的으로 協商을 통한 妥協 條件의 設定이 問題되나 協商의 有利한 高地를 占領하는 것도 또 한 힘을 背景으로 한다는 觀點에 서있다.

北韓의 金日成은 協商은 곧 平和的 方法을 통한 鬭爭의 一環이 며 盲目的인 平和主義는 決코 容納될 수 없는 것이고 敵과의 協 商에서 有利한 談判을 벌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強力한 軍事力을 背景으로 해야 한다는 點을 強調하였다.

이러한 協商의 基本原則에 따라 北韓은 分斷 28年의 每時期마 다 戰爭과 平和의 二重戰略을 展開해 왔으며 窮極的으로 이 二重

戰時이 推究하는 目標은 全韓半島에 共產主義 體制를 確固히 移植하는데 두고 있다 .

勿論 오늘의 國際潮流는 現狀固定化라는 列強相互間의 妥協線에서 世界到處의 紛爭地域, 特히 分斷國問題를 一旦 處理해 두자는 基本的 立場에 놓여 있는 것이 事實이다 . 이러한 外的 狀況展開는 韓半島 共產化를 實現하는데 주어진 條件에 不過하며 이것이 곧 北韓勞動黨의 이론바 革命의 進路를 修正 乃至 轉換시키는 要件은 되지 않는다 .

이러한 點에서 北韓의 協商戰略을 共產化統一을 實現한다는 窮極的인 目標에 依래 構想되며 또한 革命的 鬭爭의 하나의 形態로 된다 .

이러한 觀點에서 보면 北韓이 協商戰略을 展開함에 있어서 가장 主要視하고 있는 問題가 바로 共產化 統一實現에 必要하고도 充分한 背景造成이며 그 背景은 南韓內의 協商對象 選別問題라는 側面에서 考慮되어 진다 .

이러한 點에서 北韓이 追求하고 있는 協商은 곧 共產革命을 推進할 수 있는 強力한 背景造成에서 부터 窮極的인 政權의 奪取에 이르기 까지 그 時期에 따라 多樣하게 適用되고 있다 .

그러므로 協商戰略의 背景은 最終目標을 誘導하는 與件의 造成對象이 되며 다른 한便으로는 그 目標에 接近할 수 있는 條件이 된다 .

北韓이 主張하고 있듯이 「革命은 결코 輸出할 수도 없고 또 輸出하지도 않는다」는 立場은 적어도 南韓의 社會制度에 대해서는

南韓國民들의 意思와 選擇에 關한 問題로 일단 둘러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北韓이 共產化統一, 即 全國的 範圍에서의 共產主義 革命遂行이라는 窮極的인 目標가 修正되지 않는 限 協商戰略의 背景은 韓國內部에 있어서 政治, 經濟, 文化, 社會, 軍事等 諸分野의 狀況展開와 이의 主体가 되는 對象階層이 擴大가 된다.

北韓이 分斷 28年 동안 展開해 온 協商戰略은 韓半島 全域에 걸쳐 社會主義를 徹底히 移植시키는데 그 目標을 두었다. 그리고 이를 實現하기 위해서 南, 北 諸政黨 社會團體代表로 構成되는 南, 北 聯席會議를 通해서 孿族的인 統一戰線의 名分아래 共產化統一을 推進시키는 것이었다.

勿論 統一된 韓國의 社會가 어떠한 體制로 될 것이냐 하는 問題에 關해서 北韓은 全體人民의 自由로운 意思에 委任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全體人民의 意思가 곧 共產革命을 推進하는 便에 있다는 大前提 아래에서 오직 南韓社會의 選擇問題만을 提起해 온 것이 特徵이다.

그러므로 北韓의 協商戰略的 視點은 北韓地域을 如何히 革命前進 基地로 構築해 놓고 對南協商에서 一糸不亂한 共產化計劃을 推進하느냐에 焦點이 두어졌다.

이와함께 南, 北對話가 成熟되어 간 時期에 있어서 北韓의 協商 態度는 이른바 共產革命의 打擊對象으로 規定하고 있는 階層까지도

그 權限에 끌어 드리는 協商對象의 擴大와 韓國內 體制의 改造를 要求함으로써 南韓人民이 主体가 된 南韓革命與件의 造成·南·北間 交流擴大를 통한 所謂 革命支援與件의 造成 그리고 이러한 狀況을 바탕으로 韓國安保體制的 瓦解를 促進하는 拳族的展開로 集約된다.

첫째 : 協商對象의 擴大에 있어서

北韓은 基本的으로 南韓革命力량의 基本階級을 勞動者, 農民에 두고 그 補助力量으로서 靑年, 學生, 知識人, 民族資本家와 小資本家 階層을 包括하고 있다.

그러나 71年 8月 「시하누크」歡迎演說에서 金日成은 「南朝鮮의 民主共和黨을 包含하는 모든 政黨, 社會團體 및 個別的 人士들과 아무때나 接觸할 用意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外形上 그들은 協商對象을 執權黨에 까지 擴大할 意圖임을 밝혔다. 그러나 北韓이 協商對象으로서 執權黨인 民主共和黨까지를 包含시키고 있는 것은 決코 革命的 打擊對象으로 基本的으로 規定하고 있는 地主·賣辦資本家, 反動官僚까지 接受한다는 意味는 아니었다.

換言하면 韓國에 있어서의 民主共和黨이 차지하는 階層은 그 下部構造로 보아 그들이 主張하는 이른바 革命力量階層을 廣範히 包括하고 있기 때문에 上層構造의 打擊對象보다 廣範한 底辺을 形成하고 있는 革命力量階層을 意味한 것이었다.

또한 南·北韓赤十字豫備會談이 進行되어온 72年 1月 日本 讀賣新聞 記者와의 「인터뷰」에서 金日成은 南·北韓間의 接觸과 連繫를 強化하며 統一問題를 풀기 위해 南·北政治協商을 進行할

것을 主張한다고 前提하고 「民主共和黨, 新民黨, 國民黨을 비롯한 모든 政黨들과 아무때나 合意하는 任意的 場所에서 會談할 用意」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立場을 取하게 된 理由로서 金日成은 平和的으로 統一問題를 풀자면 여러가지 政黨들 사이에 祖國統一에 관한 政見들을 交換하고 合理的인 方途를 換索하기 위해서 雙務的인 또는 多務的인 協商들을 活潑히 進行해야 하기때문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北韓의 이러한 立場은 客觀的으로 두가지의 意味를 內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全體民族의 運命을 決定하는 問題이니 만큼 여러階層의 意思와 立場이 統一을 實現하는 具體的 方途에 反映하도록 해야 한다는 二個 體制의 對峙狀況에서 北의 一糸不亂한 프롤레타리아 獨裁黨과 南의 各其 利害를 달리하는 政黨들과의 多務的 接觸 또는 雙務的 接觸을 實現한다는 關係設定이다. 多數意思의 反映이란 첫번째 觀點은 統一促進過程을 單純化시켜 볼때 아주 抽象的이면서 普遍性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그 論據의 名分이 뚜렷하다.

그러나 實質的인 移行過程에서 組織化되지 못한 萬人의 意思가 그대로 反映될 수 있다는 點에는 多少間의 非現實性이 內包되어 있다. 이런 點에서 多數의 意思를 反映시켜야 한다는 立場도 名分爲主의 戰術的 口號로서 意義를 찾을 수 있다.

다음 南·北間의 二個의 體制 卽 그 어느쪽도 모든 階層이 하나의 體制에 利害關係가 密着되어 있다는 假定下에서 보면 이른바 多

多務的 接觸이나 協商이란 無意味한 것이 된다.

그러나 「프로레타리아」 獨裁黨으로서 全社會를 組織化하고 있는 北韓과 多數政派의 利害와 對峙되어 있는 狀態下的 韓國이 政治的 協商을 展開함에 있어서 多務的, 雙務的 協商의 意義는 相當히 커진다는 것을 否定할 수 없다.

이 問題와 關聯하여 南韓의 革命鬭爭과 北韓의 支援이라는 相關關係에서 볼때 雙務的, 多務的 協商戰略의 意味는 매우 重要하다.

即 北韓은 南韓의 革命은 南韓人民自身的 課業이라고 規定하고 있다. 그리고 67年 以後 南韓地域에는 맑스 레닌主義를 綱領으로 내세운 統一革命黨이 活動하고 있는 것으로 偽裝되고 있다.

61年 9月 北韓勞動黨 第4次 大會에서 提示한 對南革命課業中の 하나가 南韓內에 맑스-레닌主義를 具現하기 위해 鬭爭하는 地下黨 組織工作이며 이 地下黨組織이 合法的인 政治活動을 展開함으로써 이른바 南韓革命의 主導勢力으로 役割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點에서 볼때 雙務的, 多務的 接觸과 協商을 進行시킨다는 觀點은 곧 韓國內 合法, 非合法的인 共產化 組織이 南·北 政治協商過程에서 南韓側의 權利에 끼어 發言權을 行使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展望하게 된다.

따라서 南·北의 모든 政黨, 社會團體가 同時적으로 參加하는 南·北政治協商의 展開는 곧 韓國政治體制가 容納하는 最少階層 即 執權黨으로 부터 모든 合法的 政黨 및 社會組織 그러나 한걸음 더 나아가 非合法的 組織이나 이를 빙자한 北韓主導下的 偽裝組織

에 까지 擴大될 것이며 심지어는 個別的 人士라는 縮小된 範圍까지 파고 들 수 있는 可能的 素地를 마련한다는데 그 核心이 있다. 이렇게 볼때 北韓이 段階論에 立脚하고 있는 韓國의 立場에 對抗하여 包括的이며 一括的인 問題解決의 立場을 取하고 있음은 協商戰略이 곧 韓半島 産化에 服從하는 範圍에서 設定되고 있다는 것을 明白히 해주고 있다.

1972年 9月 日本 毎日新聞記者와의 인터뷰에서 金日成은 南·北의 高位級會談을 進行시키는 過程에서 다시 그 対象範圍를 擴大해야 한다는 立場을 밝혔다.

即 南·北調節委員會를 하루 빨리 構成運입하려고 한다는 立場을 提示하면서 그러나 統一問題는 「南·北赤十字 會談이나 南北調節委員會 機能으로는 풀 수 없는 問題들이 있다.」고 말하나 「根本的 問題들을 解決하려면 더욱 幅넓고 多方面的인 接觸과 協商을 實現하여 오랜 期間에 걸쳐 쌓인 南·北間의 不信任과 誤解를 풀고 理解를 增進시키며 平和統一을 實現하기 위한 一連의 具體的 方策들을 討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立場에서 부터 出發하여 「南·北 朝鮮 諸政黨 社會 團體들의 連席會議」나 北韓의 「最高人民會議 代議員」들과 南韓의 「國會議員」들간의 聯合會議같은 政治協商을 時急히 進行할 것을 主張한다고 했다.

이처럼 北韓은 그들의 協商戰略展開에 있어서 革命의 打擊對象과 革命力量을 分別하고 이를 基本的인 立場으로 明白히 規定하고 있으며 表面上의 打倒口號로 부터 打擊對象의 內部 克服이라는 觀

점으로 轉換하고 協商對象의 幅을 넓히며 그 底辺을 파고 들어가는 戰略的 立場을 取하고 있다 .

그리고 協商 對象의 包容手段으로서 南·北間의 接觸을 계속 擴大하는 方向으로 問題를 誘導하고 있다 .

即 南·北赤十字會談과 南·北調節委員會라는 人道主義的 接觸에서 부터 高位級 政治會談에 까지 對話의 通路가 開設되고 있는 現實에 더하여 政黨·社會團體 連席會議로 부터 南北 立法機關의 聯合會議 그리고 個別的 接觸에 이르기 까지 多樣한 接近方案을 提示하고 있다 .

이러한 北韓의 態度는 南·北間의 對話를 通하여 統一問題에 이르는 廣範한 問題들을 討議實現하는 것 보다 오히려 共產革命을 增進시키는 背景與件의 造成이라는 側面에 協商의 戰略的 價值를 賦與하고 있기 때문이다 .

둘째 : 協商條件의 設定에 있어서

協商對象의 擴大는 곧 共產革命을 促進시키는 背景與件造成에 그 戰略的價值를 賦與하는 것으로 說이된다 .

바로 이러한 與件의 造成은 革命對象地域이 南韓地域을 意識하고 그 政治構造를 소위 共產化 革命에 有利하게 改造 또는 變質시키는데 따라 決定된다 .

北韓의 統一政策은 「美帝國主義 侵略政策」에 對抗하는 「反帝·民族解放鬪爭」의 性格으로 規定하고 있으며 따라서 北韓이 追求하고 있는 對南革命實施의 基本條件은 韓國으로 부터 美軍을 撤退시

키는 것이다 .

그리고 이러한 美軍의 撤退를 위한 鬭爭은 國際共產主義運動의 重要한 一部分으로도 되고 있다 .

따라서 北韓은 國際的인 反美隊列에 能動的으로 參與하면서 南韓 國民自身の 鬭爭에 따라 駐韓美軍의 不可避한 撤収狀況을 展望하고 있다 .

이러한 展望을 可能케 하기 위해서는 南韓內 政治體制를 改造하고 非合法的인 政治組織을 合法化시키도록 全力量을 傾注하는 것이다 . 더욱기 北韓이 韓半島 全域에 共產主義體制를 移植하기 위해서 強力한 反共體制를 瓦解시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重要한 問題로 提起된다 .

따라서 北韓은 南·北의 對話 即 南北協商을 推進하는 過程에서 韓國의 政治體制를 變質시키며 이른바 對南革命可能的 條件造成에 有用한 條件을 設定하고 있다 .

即 첫째로 美軍撤収를 비롯하여 韓國의 安保와 密接히 結付되고 있는 國際的 連繫의 斷絶이다 .

71年 4月 北韓의 8個項 統一方案에서 美軍의 撤収와 韓·日 條約과 韓·美條約의 廢棄 또는 無効化를 要求한 것이나 UN과의 法關係를 白紙化시키자는 그들의 企圖는 모두 이러한 協商條件의 先次的 意味를 나타내 주고 있다 .

바로 이러한 立場은 韓國統一問題는 民族內部問題로서 外勢干涉을 基本的으로 排擊해야 한다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北韓은 南·北 對話를 進行시키는 過程에서 多樣한 方法으로 條件을 規制하는 提

議를 내놓았다.

그들의 주장에 依하며 韓國은 美帝國主義者들의 強行을 合理化하며 美帝國主義者들과 軍事同盟關係를 維持發展시키려 努力함으로써 「7.4 共同聲明」에서 合意한 自主的 原則을 違背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日本軍國主義는 再生되고 있으며 특히 大東亞共榮圈의 妄恣에 사로 잡혀 海外膨脹을 위해 출달을 치고 있다고 主張한다.

이와 關聯하여 73.4.北韓最高人民會議 第5期 2次會議에서 金一은 「7.4 共同聲明」의 3大原則中的 하나가 外勢依存이나 外勢干涉없이 自主的 統一을 實現하는 것이며 이는 美軍을 撤収시키며 其他 外部的 勢力的 干涉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美國은 南·北對話가 始作된 첫날 부터 對話를 妨害하며 尼克遜主義에 따라 「朝鮮사람끼리 싸우게 하는 方法」을 利用하면서 好戰分子들을 충동하고 있다고 前提하면서 万若 美軍이 나가면 北韓의 軍隊를 自進해서 20萬以下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北韓의 發議는 韓國의 安保와 直結되고 있는 美國과 日本의 背後支援勢力을 遮斷하므로써 事實上 韓國內部에서의 共產化 革命을 促進하는 基本條件을 마련하는데 主眼點을 두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는 南·北間의 緊張을 緩和하고 相互 信賴와 理解를 돕기 위한 분위기 造成이 重要하며 이는 軍事力의 大幅減縮과 그 狀態下 南·北間의 平和協定을 締結하자는 것이다.

72年 1月 南·北間에 人道主義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對話가 進行되 있는 동안 北韓은 現行停戰協定을 南北間의 平和協定으로 바꾸는 問題를 提起한 以來 南·北間 平和協定締結內容을 다음과 같이 提起했다 .

① 南·北의 武力增強과 軍事競争을 中止

② 美軍을 包含한 모든 外國軍隊의 撤收

③ 南·北軍隊를 10萬 또는 그 以下로 減縮

④ 南·北軍備의 大幅減少

⑤ 外國으로 부터의 一切의 武器 作成裝備·軍需物資 搬入中止

또한 73年 6月 체코의 「구스타보푸사크」를 歡迎하는 金日成의 演說에서도 南·北間의 軍事的 對峙狀態를 解消하고 緊張狀態를 가지는 것은 民族大團結의 분위기를 마련하고 南·北關係를 改善하며 平和的 統一을 實現하기 위한 가장 懇切하고 關鍵的인 問題라고 指摘하였다 .

勿論 南·北間의 平和協定을 締結함으로써 外形上 平和的 분위기 造成하에 南·北의 平和的 協力을 發展시키는 契機中 하나와 要件은 된다 . 그러나 平和協定의 實効性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 協定에 規制된 內容에 있는 것이 아니라 基本的으로 統一을 實現할 立場에 놓여 있는가가 基本的인 核心이 된다 .

北韓의 主張대로 南韓革命은 南韓人民 自身の 力量에 依하여 推進되는 것이고 또 南韓內에는 暴力에 依한 主權奪取을 當面目標로 내세우고 있는 맑스·레닌主義黨과 統一革命黨이 存在한다면 南北平和協定에 따른 南·北間 軍備縮小는 곧 北韓과의 關係에서 均衡이

維持될지 모르나 統一革命黨의 偽裝과 共產革命組織을 同時에 相對로 한 均衡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南·北間의 緊張緩和와 軍事的 對峙狀態를 止揚하기 위한 南·北平和協定이 締結은 北韓의 協商條件의 하나이면서 바로 基產革命에 服從하는 北韓協商戰略의 條件이다.

세제로는 韓國政治體制의 變質追求이다.

北韓은 韓國이 對話를 進行시키면서도 안에서 勝共, 對決, 實力培養 등 挑發的 口號를 提起하면서 戰爭準備에 服從시키며 10月 維新以後 社會를 恐怖분위기로 끌어넣으며 平和指向的인 原子力量을 苛酷하고 北韓을 찬양하는 無數한 사람들을 檢挙, 投獄하며 소위 革命家 愛國者를 학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리고 南·北間의 對話가 眞實로 成功하기 위해서는 反共法과 國家保安法 등 共產主義와 接近하려는 行爲를 犯罪視하는 法律을 廢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政治活動을 自由를 할 수 있도록 保障해야 한다고 要求하고 있다.

이러한 北韓의 主張은 南과 北이 對話를 進行시킴에 있어서 共產主義者들과 制限된 接觸에 局限시킬 것이 아니라 보다 廣範하게 그리고 合法的으로 接近이 可能하도록 體制를 改造할 것을 要求하는 것이된다. 때문에 協商自体가 互惠平等에 依한 「互相主義」原則에 立脚한다면 北韓의 境遇에 있어서도 同一하게 適用되어야 한다.

即 「프로레타리아」獨裁體制는 變質되어야 하며 따라서 各異한 政派가 다른 이 自派의 政綱, 政策을 내걸고 政治에 參與할 수

있도록 北韓의 憲法이 修正되어야 할 것이다 .

그러나 北韓은 그들 自身の 體制上의 問題를 一切 拳論함이 없이 韓國內部事情의 變化만을 促求하고 있다 .

이것은 바로 協商對象의 擴大에 따른 共產革命勢力의 広範한 引入과 이들의 合法的 政治活動을 容納하는 그러한 社會體制가 아닌 限 協商이 無意味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 提言하면 北韓은 協商을 通하여 共產革命을 可能케 하는 素地를 마련해야 한다는 現實的 慾求에 執着하고 있으며 이러한 協商條件의 規定에서 南·北 協商의 限界點을 提示해 주고 있다 .

以上 北韓의 協商條件은 韓國의 安保體制를 瓦解하고 南韓內에서 自由로운 共產革命活動을 展開할 수 있도록 條件을 設定하는데 核心이 있으며 따라서 對話의 近密과 無関하게 革命推進을 위한 手段으로서 協商戰略을 驅使하고 있다 .

따라서 協商條件의 設定과 이의 意欲은 共產革命을 進行하는데 重要한 戰略的 役割을 하고 있다 .

셋째 : 協商內容의 飛躍에 있어서

北韓은 解放以後 오늘에 이르기 까지 平和의 方法 卽 南北間의 協商을 通해 統一問題를 解決하도록 要求해 왔고 따라서 各異한 協商內容을 그때마다 提起해 왔다 .

그러나 南·北對話以後 北韓이 展開하고 있는 協商展開方向은 낮은 次元으로 부터 높은 次元에로의 漸進的 擴大라는 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

換言하면 北韓은 協商의 對象에 있어서 赤十字會談 南·北調節委員會等 그 會談 性格自体가 政治的 次元에로 옮겨짐에 따라 南·北의 모든 政黨 社會團體 또는 個別的 人士까지 그 門戶를 開放해야 한다고 主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討論 主題에 있어서도 그 主題內容을 漸次的으로 飛躍시키고 있다.

71年1月 「讀賣新聞」記者와의 인터뷰에서 金日成은 南·北間의 平和協定을 締結하고 美軍을 撤去시킨 條件下 南北間의 接觸과 連繫를 強化하고 統一問題를 풀기 위해 南·北政治協商을 進行해야 한다고 主張함으로써 單純한 人道主義的 問題의 解決만으로는 그 實現可能性이 희박하다는 시사를 주었다.

그리고 同年 7月 「7·4南·北共同聲明」이 發表되고 南·北間의 高位級 政治會談이 開催될 辰望을 열어 놓은 時點에 이르러 南·北調節委員會를 하루 빨리 構成할 것을 促求하면서도 「統一問題는 赤十字會談이나 調節委員會같은 制限된 範圍의, 接觸과 協商만으로는 解決할 수 없다」고 말하고 多方面的 接觸과 協商을 提起했다. (72年9月12日 每日 新聞記者와 金日成會見)

이처럼 協商의 幅을 넓히면서 73年2月7日「2·8節」 記念行事에서 한 吳振宇의 報告에서는 南·北會談의 性格을 다음과 같이 規定했다.

即 南·北會談은 自主的 平和統一을 實現하기 위하여 民族大團結의 原則아래 多方面的인 合作이 實現되어야 하며 그 具體的 方案으로서 現軍事的 對峙狀態를 解消하므로서 平和的 統一氣運을 더욱 發揚하며 政治, 經濟, 文化, 軍事, 外交 등 諸分野에서의 合作을 이룩

하는 것이다.

이러한北韓의主張은 韓國維新憲法採択以後 韓國에 造成된 情勢가 이른바 對話를 통한 南韓에서의 革命与件造成努力에 흐린 展望을 보여주고 있고 또 美·中共의 接近과 美·蘇關係는 곧 南北對話를 推進하는 北韓에 對하여 새로운 局面을 열어놓고 있다는 狀況評價에 基礎한 것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美國의 匪細匪 政策에 対応하는 中共 또는 蘇聯의 相衡된 立場과 그것이 北韓의 對話政策에 對한 相異한 見解를 誘發하고 있다는 狀況下에서 北韓은 解氷되어 가는 南·北關係發展에 새로운 緊張을 던져 주었다.

即 吳振宇는 그의 報告에서 「韓國이 繼續 武力을 增強하고 戰爭準備를 強化한다면 應分の 対応措置」를 取하게 될 것이며 「끝내 階級戰爭을 強要한다면 그것을 傍觀하지 않겠다」는 態度를 보여주고 있다.

말하자면 北韓은 階級鬭爭不辭라는 強硬한 姿勢로 부터 多方面的 交流라는 穩健한 對話推進努力에 이르는 極과 極을 내달으며 多樣한 方便을 驅使하고 있다.

73年4月 北韓最高人民會議 第5期 2次會議에서 金一은 美軍撤収를 비롯한 其他 外部努力의 干涉을 排除하며 情勢를 尖銳化하는 言行을 삼가할 것과 制度를 相對方에 強要치 말아야 하며 社會民主化와 各界各派 그리고 全体 人士의 政治活動의 自由를 保障해야 한다고 前提하고 政治·經濟·軍事·文化·外交등 多方面的인 合作을 提起하였다.

經濟分野에 있어서 ① 北韓地域에 充分히 埋藏된 地下資源의 共同開發 ② 漁物의 開放 ③ 共同漁場 ④ 南韓의 灌溉工事共同推進등

經濟的 可能性을 民族經濟의 自立的 發展을 爲해 統一的으로 利用하는 問題

科學·文化分野에 있어서 ① 民族語의 統一研究 ② 歷史의 共同研究 ③ 固有한 民族의 風貌를 빛내는 問題 ④ 藝術·體育團의 交換 ⑤ 單一한 民族藝術團·單一한 體育團을 構成하여 共同進出하는 問題

軍事分野에 있어서 外勢侵略을 막는데 對한 共同防衛問題 그리고 外交分野에 있어서 對外活動의 共同步調問題 등이다. 그러나 韓國側에서 段階論에 立脚한 經濟·文化的 交流의 先次的 解決提議가 具體的으로 表面化되자 北韓은 協商內容의 焦點을 多方面的 交流에 앞서 緊張緩和를 實現하기 爲한 軍事問題의 解決 優先을 내세우고 實質的 妥協을 忌避하기 始作한 것이다. 말하자면 國際情勢의 不確定要素와 革命推進의 障礙的 條件을 克服하는 方便은 곧 問題의 核心에 깊이 파고 들어가 하나씩 하나씩 協力的 바탕을 築기 보다는 協商의 主題를 그때 그때 뒤바꾸므로써 窮極的으로 그 어느 하나도 實現시키지 않은채 諸問題를 一旦 討議해야할 問題點으로 浮刻시켜 놓은데 根本的인 意圖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때문에 南·北對話의 進歩는 그것이 크고 작은 問題를 莫論하고 相互 合意하고 또 實行됨으로서 有益한 것이나 그것은 곧 革命의 必要條件이 되지 않을 境遇 決코 妥協할 수 없는 것이며 오직 可能的 契機로서 役割할 뿐이다.

이러한 立場에 서있는 北韓은 韓國의 「6.23 平和統一外交宣言」에 依하여 南·北狀況이 새로운 局面으로 發展하게 되자 南·北協

商의 窮極의 目標을 表面化시켰다 .

韓國에서 「 6.23 」宣言이 發表된지 10時間 뒤에 北韓을 訪問
中일 北朝鮮共産黨 總秘書 「구스다보·후사크」를 歡迎하는 자리를
벌어 南·北對話의 基本問題가 提示됐다 .

即, 첫째로 방대한 武力을 가지고 서로 軍事的으로 對峙하고 있
다는 現實은 곧 平和威脅의 要因이며 南·北間의 誤解와 不信의
그늘로 되고 있기 때문에 軍事的 對峙狀態를 解消하고 緊張狀態를
가시는 것이 懇切하고도 關鍵的인 問題라는 것이다 .

따라서 이러한 問題를 解決하는 것은 ① 武力增強 軍備競爭中止
② 모든 外國軍隊撤収 ③ 軍隊, 軍備의 縮小 ④ 武器 搬入中止
⑤ 平和協定 締結 등 諸問題가 處理되어야 한다 .

둘째, 政治, 軍事, 外交, 經濟, 文化 등 諸分野에 걸친 多方面的 合作·交
流는 統一의 前提條件 마련에 重要한 意義를 가지며 이러한 多方
面的 合作과 交流가 實現되어야 平和協定도 보다 円滑하게 된다 .

셋째, 對話는 北과 南의 當局者들 사이의 範圍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全民族 範圍에서 벌어져야 하며 따라서 北韓의 勞動者, 勤
勞農民, 勤勞인테리, 青年學生, 兵士들과 南韓의 勞動者, 農民, 青年學
生, 知識人, 軍人, 民族資本家, 小資產階級 등 各界各國民들과 政黨,
社會團體代表로 構成되는 「大民族會議」를 召集해야 한다 .

네째, 高麗聯邦共和國의 樹立과 單一國號에 의한 UN의 加入을
實現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

이러한 北韓의 提議는 그 狀況評價로 보아 單邊, 單政을 反對하
기 위하여 展開했던 48連帶會議 召集當時와 同一視하고 있다 .

6.23 金日成演說에서 나타난 具體的 方案들을 評價해 보면 平和協定の 締結은 곧 6.25 戰爭以後부터 北韓이 戰略的 口號로서 一貫하게 主張해 온 內容으로서 「停戰協定の 鞏固化」, 「平和保障을 위한 國際會議召集」, 「武力不行使協定」, 「武力不行使宣言」 등으로 表現되어 왔다. 이러한 平和保障方案은 其實 南·北當事者에 依한 現實認定을 誘導하는 方便이 있으며, 때문에 北韓은 北韓地域에 共產主義者들이 統治權力を 行使하고 있다는 現實을 認定해야 한다고 喚起시켜 왔다. 그리고 多方面的인 交流는 事實上 「6.23」平和統一外交宣言에서 明白히 提示하고 있음에도 北韓은 平和協定締結이 平和的 統一의 實現을 위한 關鍵問題로 못박고 오히려 副次的 意義로 格下시켜 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多方面的 合作이 實現됨으로서 平和協定도 보다 円滑히 된다는 點을 強調함으로써 平和協定締結과 多方面的 交流는 先後를 가릴 수 없는 必要한 條件으로 된다. 여기에서 北韓의 提議는 必要에 의해서만이 妥協한다고 하는 속셈이 들어나고 있다.

또한 「大民族會議召集」問題는 바로 諸政黨·社會團體들의 政治協商을 指稱하는 것이나 이 提議가 企圖하는 바는 南·北間의 信賴를 回復하는 段階的 努力에 앞서서 韓半島狀況을 그들에게 有利하도록 轉換할 수 있도록 學族的인 統一戰線形成에 主眼點이 있다. 이러한 着想은 곧 「48 南·北聯席會議」가 南·北政治指導者들의 綜合的 組織으로서 具體的 統一方途를 提示하기에 앞서서 可能한 地域에서의 總選反對運動의 名分으로 活用된 史實에 비추어 評價해야 한다. 換言하면 南·北總選을 拒否하고 그 代案으로 提起된

南韓에서의 單選單政反對에 先次的 鬭爭目標을 設定한 것은 共產體制移植에 障礙가 되는 總選契機는 默殺하며 오직 共產化 革命的 有利한 條件이 造成되도록 狀況을 展開한데 있었다는 點을 想起할 수 있다.

이와함께 聯邦制의 提案은 그것이 새로운 着想이 아니지만 「6. 23 平和統一外交宣言」에서 提示한 UN 同時加入論에 對抗하는 條件으로 設定된 것이다.

金日成은 同演說에서 南·北이 各其 UN에 加入하는 것은 現狀을 固定시키고 分斷을 永久化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嚴密한 意味에서 分斷 28年 동안 北韓의 對外的 活動이나 對南 提議에서 現狀을 認定하는 態度를 明白히 해왔다.

韓國의 「할슈타인」原則에 立脚한 外交的 牽制에도 不拘하고 北韓은 國際적으로 同時承認을 獲得하기 위한 努力을 傾注해 왔고 이러한 立場은 國際機構에의 加入이나 南·北間의 協定締結提議에 이르기까지 広範하게 具現되어 왔다.

이 問題에 관하여 北韓은 平等互惠의 原則에서 國家關係를 發展시키고 있으나 이것을 두개의 韓國 造作에 利用하는 것을 反對한다는 立場을 取함으로서 가법게 넘기고 있다. 万若 이러한 論理가 成立된다면 現時點에서 UN에 南·北이 同時에 加入하는 問題를 반드시 分斷을 永久化하여 統一을 拒否하는 側面에서 理解하기 어려워 진다.

이러한 點에서 볼때 北韓은 共產革命에 有利한 條件이 成熟되기 까지 不斷히 協商主題를 飛躍시킴으로서 多様な 問題들을 提起해

놓고 그것을 革命可能한 要件으로 發展시켜 나가려고 할 것이다 .

그리고 南北會談에서 보인 北韓의 協商戰術을 성립한다면 다음과 같은 양상이 될 것이다 .

(1) 議題는 會談 첫 머리나 약간의 討議 끝에 議題를 發表 또는 提案할 것이며 그 內容은 相對方을 처음부터 수세적으로 誘導할 수 있는 잇슈로 作成될 것이다 .

(2) 共産側이 고르고 指定한 場所와 時期에 會談을 가지게 될 것이다 .

(3) 共産側은 自己의 決定에 따라 合意成果가 없게 할 選擇權과 會議節次를 遲延시키거나 終結시킬 選擇權을 保有할 것이다 .

(4) 共産側은 平時에는 時間을 考慮하지 않고 協商可能性을 排除할 것이나 決定時期에 가서는 協議 可能性을 提示하여 數時間內에 合意에 應할 것이다 .

(5) 共産側은 平穩한 雰囲気속에서 進行되는 會談을 希圖하지 않을 것이다 .

(가) 利益과 宣傳目標에 有利하도록 計算된 事件이 操作될 것이며 .

(나) 相對方에 대한 一連의 非難을 가할 것이며 .

(다) 이에 처한 反박은 效果가 없게 될 것이며 .

(라) 操作은 代表團에 依하여 隨時로 計畫, 推進될 것이다 .

(6) 會談은 非公開를 願하며 合意事項 以外의 內容은 非公開토록 할 것이다 .

(7) 共産側의 協商代表團은 奴隸的으로 追求하는 일종의 敎理의

追從者이며, 名聲과 地位, 職位는 2次的인 問題가 될 것이다.

(8) 共産側은 不得已 履行하지 않으면 안될 約束의 範圍를 縮小시키거나 履行하지 않으려는 속셈에서 計劃的인 造作을 恣行할 것이다.

(9) 共産側은 願치 않는 內容의 協定을 回避하려는 意圖가 挫折되거나 또 内心 遵守하기 싫은 協定의 範圍를 縮小시키려는 努力이 極端的으로 窮地에 물리게 될 境遇에는 그 다음 手法으로 協定 實行機構에 對한 拒否權을 保有하려고 努力할 것이다.

(10) 共産側은 허무맹랑한 問題를 提議하여 恠정의 對象으로 利用할 것이다.

(11) 共産側은 다음 2가지 手法으로 모든 것을 合理化시킬 것이다 :

(가) 眞實을 斷呼하게 否定하는 戰術

(나) 眞實을 뻔뻔스럽게 歪曲하는 戰術

(12) 共産側은 事實에서 작은 問題를 꼬집어 내어 本來의 事實과 完全히 反對되는 結論을 誘導할 것이다.

(13) 共産側은 相對方이 讓步를 하면 이를 理論的인 동기나 會談을 進展시키기 爲한 진지한 欲望에 依해서 讓步한 것으로 보지 않고 약화된 證據로 보고 보다 攻勢的이며 보다 많은 要求를 하게 될 것이다.

(14) 共産側은 目的에 不利한 合意를 보았을 境遇 어떤 方法으로든지 그들의 合意를 피하는 方法을 使用할 것이다.

이루어진 合意를 修正하는데 조금도 當황하지 않으며 文書로 合意가 이루어졌을 境遇에도 예외는 안될 것이다.

(15) 共産側은 똑같은 發言과 愚鈍한 內容으로 뻔뻔스럽고 狡猾하게 要求條件을 反復할 것이다.

5. 東亞의 協商技術 比較分析

東西의 協商方式은 各已 分離해 놓기에 充分한 程度의 特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对照해 보는 것은 意味있는 일일 것이다.

西方外交官들은 그들의 訓練과 文化的 傳統에 있어서 물론 다르다. 이러한 差異가 그들의 協商方法에 약간 反映는 것을 찾아 볼 수는 있으나 그러나 通常的으로 이러한 差異는 協商스타일을 明白하게 識別할 수 있을 程度로 廣範圍하지는 않다. 더욱 重要한 것은 協商家가 活動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國內的인 制約을 決定하는 政府構造上에 있는 差異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差異도 問題마다 다르다. 얼마간 보다 堅實한 國家的인 性格의 한가지 예는 美國外交官들의 輿論에 대한 高度의 感受性을 들 수 있다. 美國의 輿論은 美國政治生活의 特有한 모습과 文化的 要素로부터 導出된다. 프랑스 外交官들은 그들의 協商戰略을 위한 背景으로서 歷史的, 哲學的 테에마를 精巧하게 다듬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理由는 아마도 그들의 教育이 綜合的 에세이 作文에 力點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獨逸과 美國의 協商家들은 대부분의 다른 西方國家들의 外交官들보다는 法的 側面에 때때로 더 力點을 두고 있다. 이러한 理由는 아마도 본과 워싱턴의 對外政策遂行에 있어 法律家들이 行하는 重大한 役割 때문인, 것이¹⁾ 다.

가. 共産側의 手腕

共産側 協商家는 西方側 協商家보다 대담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政府의 積極的인 支持와 國內輿論의 制約을 받을 必要가 없기 때문이다.

共産側은 協商目標와 接近方法에 對하여 新聞記者 뿐만아니라 代 表者에게도 秘密保障이 可能하나 西方側은 國內輿論을 外面하고는 協商을 發展시킬 수 없다.

다시 말해서 共産側은 西方側처럼 國內輿論의 制約을 느낄 必要 가 없다.

共産國家의 大衆은 通常的으로 協商에 대한 情報가 빈약하다. 共産側 國民들은 對外問題에 관한 그들의 影響力不足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 見解를 披瀝하려고 거의 하지 않으며, 또는 그들 자 신의 見解를 形成하려고까지 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은 共産側 外交官들이 그들의 協商戰術을 대단히 자유롭게 選擇하도록 하는 것이다. 共産指導者들은 아마 最後에 가서야만 그들 對外政策에 대한 어떤 國內支持를 要求한다.

共産側 協商家들은 완전히 調整된 宣傳機構로서 그들의 長期戰略 과 日常戰術을 支援할 수 있는 보다 앞선 利點을 누린다. 이에 反하여 西方國家들은 언제나 意見이 紛紛하다. 共産側代表는 會議 席上에서 흔히 西方政府의 立場을 論駁하기 위하여 西方의 野黨指 導者들, 科學者들, 저널리스트의 發言을 기꺼이 引用하고 있다.

要約컨대 共産側 協商家들은 가장 狡猾한 戰略遂行에 必要한 것

은 무엇이든지 자유자재로 쓰는 것 같다. 이러한 것들로는 企圖
上의 完全한 秘密, 執行에 있어 國內干涉으로부터 解放, 強力한 全
體主義體制의 調整된 支援 등이 있다.

共産側協商家의 欠點에는 西方側協商家보다 大貧小失하는 點이 있
다. 그들은 半 덩어리의 빵을 얻을 수 있는 곳에서 한 덩어리의
빵을 가끔 얻으려고 하여 전혀 아무것도 얻어 내지 못한다. 그
들은 모든 外交官에게 中要害한 2가지 手段이 되는 脅迫의 信賴性
과 約束의 값어치를 조금씩 깎고 있으며, 이상하게도 그들은 머물러
있어야 할 때 協商에서 뛰쳐 나와 버리며, 反面 어떤 때는 그들
자신의 限界線을 교란하면서 對話를 계속한다. 그들은 親交를 얻
어야 할 좋은 사람에게 侮辱을 주고 敏心을 사야 하고 創意的이
어야 할 곳에 硬直的이고 自家撞着的이 된다. 비록 그들의 자신
의 目的을 위하여 語彙의 意味를 歪曲하고 原則上의 合意를 利用
하는데 노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헛된 語句나 或은 模糊한 原則
에 대하여는 猛烈한 鬭爭을 벌인다.

더구나 그들의 失手가 그들의 長點으로 作用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그들이 虛勢를 무모하게 取한다면 그들은 그 虛勢를 通해서
收穫을 얻으려는 努力에 역시 태평스러워야 하며, 그들이 좀더 寬
大함으로써 西方에 負擔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頑固해서 有益한 妥協機會를 놓칠 때까지 受諾할 수 없는
要求에 매달려 相對側이 評價를 달리하여 그들의 要求한 것을 完
全히 또는 거의 大部分을 받아 들일 때까지 受諾할 수 없는 要
求인 것 처럼 보이는 것을 되풀이 하여 敗北의 길과 連關시키고

있다.

그들은 약간의 讓步로서 西方側의 輿論을 속임으로서 本質的인 讓步를 強要할 程度로 우둔한가하면, 어떤 때는 西方側의 輿論을 無視함으로써 決定的인 立場을 놓칠 때도 있다.

나. 西方側의 手腕

西方側協商家들은 갈등을 分離시켜 取扱하는데 能熟하여 "틀"에 박힌 節次를 遵守하여 相對側을 희생시키면서 利益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共同体 精神에 立脚한 協商姿勢는 會談에서 能率的이고 有益한 交換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自利가 깨어질 때는 理由없는 損失을 입게 된다. 그리고 普遍的인 欠陷事項으로 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로 西方側協商家들은 會議에서의 "잇슈"를 相對側에게 決定케 하는 欠点を 가지고 있다.

共産側은 論議하고 싶지 않는 問題는 엉뚱한 主張으로서 거절해 버리고 그들의 一方的인 要求事項을 提案하여 會議에서의 主導權을 掌握하려고 한다.

一方이 留保해 두고자 하는 問題를 "잇슈"化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問題解決에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둘째로 西方側協商家들은 對抗的 要求에 대하여 너무 神중한 欠점을 가지고 있다.

西方側協商家들은 伸縮性이 없는 것은 分明히 適當치 못하다. 西方에서는 讓步는 交換되어야 하고 妥協은 合意에 到達하는 가장

理想的인 方法이라고 認識하고 있으며, 協商을 拒絕하는 表示를 싫어한다. 그러나 만일 相對側이 一方的인 讓步를 強要한다면 純損失을 廻避하는데는 對抗的 要求를 구사하는 方法밖에 없다.

對抗的 要求란 相對側이 提起한 것과 關連있는 問題든지 전혀 關係없는 問題에 對한 自己의 취향에 따라 要求하는 것이다. 對抗的 要求는 純損失을 當함이 없이 自信을 保護하는데 必須的인 것이다. 對抗的 要求로 相對側에게 對処하는 경우에 西方側協商家들은 마치 非良心的으로 行動하는 것처럼 生覺하는 傾向이 있다. 西方側協商家들은 對抗的 要求를 提起하지 않거나 有効한 對抗的 要求를 拋棄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가지 變명을 한다. 말하자면 對抗的 要求란 갈등의 영역을 넓힌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變명은 對抗的 要求가 맨 처음 提起되었을 때는 事實이다.

實際로 갈등의 영역을 自己側의 울타리에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防止하는 것이 對抗的 要求의 目的인 것이다. 그러나 時間이 지나면 對抗的 要求는 相對側에게 어떤 壓力을 加하고 自信의 立場에 보다 融通性을 가짐으로서 合意를 促進시킬 수 있는 것이다. 西方側協商家들은 對抗的 要求를 避하는 主要한 理由는 對抗的 要求가 挫折되어 버린다면 後에 議會와 大衆의 反對에 逢着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理由는 다음의 3가지 理由에는 弱하다.

- (1) 協商은 成果를 위한 具體한 言質구사와 이 言質이 깨어졌을 때의 悲傷을 甘受하여야 한다.
- (2) 對抗的 要求는 相對側의 元來의 要求 撤回과 同時에 撤回되어야 한다.

(3) 協商家의 伸縮性에는 對抗的 要求上에 讓步가 決定되어야 한다.

또한 西方協商家들이 對抗的 要求를 주저하는 結果로서 交合戰術의 機會를 자주 놓친다.

세째로 受諾할 수 없는 案을 提示하는데 주저하는 欠點을 가지고 있다.

西方側協商家들이 自己側이 받아 드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提案을 相對側에게 내어 놓기를 주저하는 點은 그들이 對抗的 要求를 躊躇한다는 點과 關聯된다.

共產側協商家들은 受諾을 追求할 때 讓步의 余裕를 갖기 위해서 그들이 受諾할 수 없다고 생각할 要求를 細部事項으로 자주한다. 다시 말해서 共產側協商家들은 獲得할 수 없는 目標에 기꺼이 도전한다.

西方側協商家들이 受諾할 수 없는 提案을 躊躇하는데는 여러 가지 理由를 들 수 있다.

첫째는 受諾할 수 없는 提案을 하는 것은 무모한 것 같다고 느끼며,

둘째는 受諾할 수 없는 提案을 하는 것은 相對側을 反對하는 姿態로 생각하며,

셋째로 참되고 誠實한 姿勢가 이니라는 비난을 받을까 느끼기 때문이다.

西方側이 受諾不可能한 提案을 하지 않는 것은 거의 道德的 規範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道德的 協商方法은 自己의

協商姿勢의 誠實한 性品을 나타낼 수 있을지는 모르나 協商을 促進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먼 方式이거나 協商可能性을 完全히 결렬시키는 方式이 될 때가 있다.

또한 受諾不可能한 案에 取扱을 忌避하고 實質的인 案에만 專念하므로써 協商을 遲延시키거나 部分的으로 受諾할 수 없는 提案을 推進함으로써 問題가 具体化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망각하는 境遇가 많다.

受諾不可能한 提案이 相對側의 敵對感情을 誘發시키기는 하나 相對側과의 關係를 어렵게 하는 것만은 아니다.

넷째로 西方側協商家들은 스스로 有用한 脅迫을 자제한다.

하여야 할 境遇에는 共產側協商家들은 會議의 결렬이나 單事件을 造作하여 脅迫을 잘 구사하지만 西方側協商家들은 自己側의 基本政策을 轉換시킬 뜻을 비추기를 顯치 않기 때문에 脅迫을 스스로 抑制하거나, 불가분할 境遇에는 露骨的인 脅迫보다는 隱然中에 경고 조치를 하는 程度에서 끝난다.

그리고 自己側의 基本政策으로부터 離脫을 示唆함으로써만 效果的인 脅迫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協商을 拋棄한다. 勿論 協商을 通하여 어떤 目的을 追求하고 있다면 單純히 相對側을 害할 目的으로 我側의 現在 目的에 저촉하면서 政策을 轉換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못된다. 그러나 相對側은 我側의 基本政策이나 現在 追求하는 期待値가 무엇이며, 또 어느 程度로 확고한지를 모를 것이다.

여하는 西方側協商家들이 갖는 共通的인 弱點은 衝突에 對하여

多少被動的이며, 衝突하였을 경우 衝突을 有利하게 誘導하기 보다는 避하려는 傾向이 있다.

西方側은 不利한 協商을 해야 할 境遇에는 自身感과 成功을 追求해 나가는 대담성이 不足하고, 有利한 立場에서 協商할 境遇 너무나 道德的 規範에 억매여 有利한 立場을 살리지 못하는 欠점이 있다.

6. 結 論

共産主義者들과의 協商하는 데 있어서 第一規則은 「協商은 길고 어려운 課業」임을 假定해야 한다.

지금까지 共産主義者들과 協商의 經驗을 가진 자다. 協商技術을 研究한 모든 전기자들은 共産主義者들과의 協商에 다소 批判的이지만 그 누구도 協商을 해서도 안된다고, 할 수 없다고 암시한 바는 없다.

共産主義者들과의 協商 經驗을 가진 者들의 批判과 충고를 綜合 整理하면 對共協商에 있어서 무엇이 가능하며 무엇을 不可能한지 밝혀 주는 지침을 어느 程度 定立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은 불변의 確固한 規則이라기 보다 基本的인 實用戰術의 바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로 共産主義者들과의 協商은 그 自体가 거의 또는 전혀 타당성을 갖는 것이 아니다.

「바르사바」會談에서의 美國代表인 「존·그로노우스키」大使는 中共代表의 태도에 관한 質問에 대하여 「이 會談은 우리가 때때로 우리들간의 緊張을 줄이기 위한 提案을 내놓을 機會를 提供해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緊要하다」라고 答辯하여 協商은 「緊張을 줄이는 힘」임을 強調하였으며 「애치슨」은 協商이란 共産主義者들에게는 하나의 戰術手段 즉 危險하고 高度의 기동성을 가지는 적대 작전임을 기억하라고 忠告했으며 「레오나드·샤피로」는

協商을 「共產主義者들의 國內 및 對外政策을 숨길 수 있게 하는 「거창하고 成功的인 宣傳活動」이라고 說明하였고 「모슬러」는 「協商은 自身の 壓力에 반대하는 國家를 混亂시키고 分裂시키는 目的만을 지닐 수 있는 것」임을 暗示해 주었다. 이 같은 說明에 비추어 「레위스」는 「行動에 參與하는 것 보다는 適當히 觀望하면서 아무 活動도 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을 때가」 있다」고 시사하였다.

둘째로 共產主義者들과의 協商은 어떤 주제를 解決하는 데 있어서 한 부분의 불과하다.

中共과의 經驗을 가진 美國人 「앵」은 實用主義的 美國人들은 하나의 個別問題를 한없이 복잡한 國際關係에서 빼어 내어 그 自体만을 다루려고 한다. 그러나 「毛澤東」主義者들은 時間을 경제 놓지도 않고 問題를 分離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한 時期에 하나의 主題를 擇래 처리하려다 失敗한 경험담을 이야기 하였다.

「해치슨」과 「이클레」는 公式協商 그 自体는 대부분이 흥정 「테이블」에서는 먼곳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動機와 逆動機의 極致에 불과하다고 強調하였다.

셋째로 共產主義者들과의 協商은 国力과 直接的인 關係가 있다.

英國大使 「윌리엄헤이터」경은 「蘇聯人들은 雄辯으로 說得되지도 않고 合理的인 討論으로도 설복되지 않는다. 그들은 「스탈린」이 이야기 하던 소위 國際政策과 힘의 計算에 依存하고 있다. 때문에 아무리 숨씨 있게 배설되고 아무리 分明하게 반박할 수 없도

목 証明된 것일지라도 그들이 当初에 결심한 것을 못하도록 그들을 說得할 수는 없다. 그들의 目的을 變更시키는 유일한 方法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有利한 대가도 없으며 그들이 하려는 것이 不可能함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外交와 힘이 없이는 中共과의 協商이란 如意치 않거나 不可能하다』고 썼다. 그는 過去의 對中共關係의 危機를 再檢討하면서 『美國이 外交的인 解決을 더 바라면서도 中共에 압도적인 힘에 호소할 용의를 통고할 때 中共人들은 더욱 신중한 容通성으로 그 결과에 關한 協商에 임했다』고 論評했다. 「모슬리」는 힘이 확보 되었을 때 協商할 것을 強力히 要求하면서 『西方外交政策에서는 힘의 입장을 확보하는 것과 協商을 利用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힘을 확보하는 것과 協商을 하는 것 두 가지가 서로 代案이 되는 것이거나 반대되는 것으로 간주될 순 없다.

이 두 가지는 서로 결합되어야 한다. 힘과 힘 뒤에 결심이 없는 協商은 좌절이 따르고 위험하며 나아가서는 자살행위가 될 수도 있다」

넷째로 共產主義와의 協商目標의 넓은 公同영역은 없다.

『共同의 目的에 언급함으로써 蘇聯人들의 協力を 얻으려고 애써 보았자 소용 없다』고 「케난」은 말한다. 그는 그들과의 經験을 회상하면서 『그들은 그들 自身の 目的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도 우리.. 自身の 目的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완전한 하나의 「게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같은 共同

의 공음에 바탕을 둔 主張을 갖고 그들에게 다가가면 그들은 두
 곱으로 의심을 품게 된다』고 슬피했다. 「애치슨」은 더욱 통명
 스럽게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기대하거나 協商過程을 통해 그들
 의 속셈을 확인하려는 것은 환상이다」라고 극언했다. 또한 「모
 슬리」는 「蘇聯協商者는 好意를 믿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美國協商者가 애써 극복해야 할 장애는 그보다도 훨씬 높다. 美
 國代表는 事實上 自身이 相對하고 있는 사람을 「모스크바」에서 마
 려된 見解와 要求를 주장하는 機械的인 대변자로 간주해야 한다.
 蘇聯代表는 友好的인 接近에 따르기는 커녕 아마도 「帝國主義者와
 萬民同胞主義者의 영향력에 굴복하여 그 포로가 되었다는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 할 것이다」 이같은 공포감은 討論自体는 고사하고
 最小한 外國의 감정과 見解의 전달을 촉진시키기는 커녕 實際로
 協商進行을 방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이다.

다섯째로 共産指導者들은 根本上로 變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共
 産主義者들의 協商은 權限로 부터의 동체가 지극히 엄하기 때문에 (5)는 아마도 全
 項目中에서 가장 重要한 項目이라 할 수 있다. 「애치슨」은 「蘇聯管理들을 다루
 어 본 많은 美國代表들이 그들의 個別的인 回憶이 아유, 냉소적인 일화와 좌절과
 좌증을 불러이시키는 協議에 지극히 제한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은 무엇때 눈이나」고 반문하고 「내 생각으로는 그것은 어떤 실
 제의 개별적인 關係가 不可能하기 때문이다」이라고 자문한다.

「헤이터」도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즉 「... 蘇聯
 통치자들과는 항구적인 진정한 個人關係를 맺는 것은 不可能하다」

는 것이다. 이같은 판단을 벌써 여러해가 된 것들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專門家들도 대체로 이를 強力히 再確認해 준다. 예를 들어 「로버트·콩퀘스트」는 「호르시초프」以後의 蘇聯指導者들을 면밀히 研究한 끝에 그들에 관해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提案을 내 놓았다.

(1) 『共產指導者들이 (실로 우리 指導者들과 똑같은 類型에 속하는 것은 아니나) 다소 같은 압력과 策動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2) 『現在 蘇聯을 통치하고 있는 特定指導者는... 知的으로는 3類이다.

(3) 이 같은 指導者는 단순한 말을 잘 理解하며 「예일」大學 教授 「프레데릭·바군」이 蘇聯에서 체포되었을 때 美國이 文化交 流協定協商을 결렬시키겠다고 威脅한 것과 같은 直接的인 行動에는 민감한 反應을 보인다.

(4) 蘇聯과 西方體制가 다소 「유사하다」는 생각이 協商의 전제가 되어서는 안된다.

(5) 共產主義者들의 態度에 關한 이러한 오해는, 西方人들간의 『「左派」獨占物도 아니며 「右派」의 獨占物도 아니다』

(6) 相對者의 어떤 움직임에 대한 共產主義者들의 反應은 西方의 基準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들과 恠정함에 있어 『「체스」경기』를 하려하지 말아라.

(7) 協商過程에서 완강한 자세를 택하는 경우 그들의 분노를 겁내지 마라. 그들은 그런것에 분개하지 않는다. 실로 그들은

그런 것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레오나드·사피로」는 西方人の 착각에 關係 이와 유사한 다음과 같은 4개 항목을 열거하고 있다.

(8) 蘇聯 진영내의 意見對立은 그 指導者들의 지위를 크게 흔들지는 못한다. 그들은 그들의 人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 별로 상처를 받지 않는다.

(9) 蘇聯과의 진정한 緊張緩和란 망상이다. 『蘇聯은 平和에 関心이 없다. 그들은 熱戰 또는 核戰의 회피에 関心을 갖는다...』

緊張緩和 可能性에 대한 西方側의 信賴는 緊張緩和를 가져오기 위해 蘇聯만이 특을 보고 그 대가는 전혀 보상하려 들지 않는 양보를 할 우려가 있다』

(10) 『蘇聯이 核國인 中共이 두려워 美國과의 實際의 平和를 원하고 準備할 것이란 착각』을 경계하라. 蘇聯의 우려는 실로 지극히 크다. 그러나 거의 自身の 基本態度를 바꿀 程旣는 아니다.

(11) 「國際共產主義運動의 응집력의 와해로 蘇聯의 威權이 제거되었다는 착각」을 버려라. 이같은 응집력의 와해는 分明히 西方에게는 유리하다. 그러나 그것이 과대 평가되어서는 안된다. 『各國共產黨은 最後手段으로 蘇聯과 손을 잡고 美國에 대항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가정은 共產主義者들과의 協商을 막기 위한 것도 아니며 또 그렇게 간주되어서도 안된다. 이것은 신축성있게 기술적으로 應用한다면 西方協商者들로 하여금 그의 相對方과 똑같은 조건에서 會談할 수 있게 하는 일련의 예비적 活動戰術이다.

共産主義者들과 協商을 하는 「테이블」에서 警戒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原則的인 合意』의 各별히 조심하라. 『우리는 특히 軍備 縮小 및 統制問題등에 빠져 들어가게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이 分野에 있어서 極히 專門的이고 詳細한 合意와 檢証統制를 必要로 한다』 만일 폭넓은 원칙성명이 必要하면 그것의 利用을 삼가고 『蘇聯協商者가 이를 共感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리고 만일 일련의 原則이 宜當되어야 할 경우에는 그 原則이 美國의 國家利益에 맞는 말로 表現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蘇聯에서 訓練받은 協商者들은 國家利益을 確認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어 계반원칙을 일정한 조정목표가 될 事實로 보기 때문이다』

(2) 『속임수 議題』를 피하라 「딘」은 『共産主義協商者들에게 는 議題를 위한 싸움은 基本的인 것이다. 왜냐 하면 그들은 이 最初의 싸움에서 相對方에게 굴욕을 할 수 있고 또 이에 會談의 勝敗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라고 피력했다. 『그들은 종종 正確하다』 「조이」제독은 板門店이 거의 그러한 경우로 判明되었다고 회想한다. 『우리는 議題를 걱정하는 데 큰 실수를 저질렀다. 그 때문에 우리는 지극히 값비싼 대가를 치루었다』고 그는 덧붙 였다. 「영」은 美國協商者들에게 너무나 지나치게 세부사항에까지 빠져들어감으로써 自身の 출발 지침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그에 따르면 美國代表團은 돌연 自身이

지극히 여러번 서투른 『힘늘음』과 軍事力의 시위외에 다른 탈출구가 없는 相對方의 합정장 빠져있음을 깨닫곤 했다는 것이다.

「모슬리」蘇聯과의 協商에서는 이미 協商이 시작될 때 그에 잇단 『장기간의 討議期間에 論理的으로나 政治的으로 繼續 견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明確한 立場을 택하는 것이 지극히 重要하다』고 조언한다.

(3) 『共產主義者들의 修飾學을 해석하고 처리하는 方法을 배우라. 共產主義者들의 장황한 성명은 실상 어떤 重要한 알맹이를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그것을 지나치게 진지하게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클레」의 주장이다. 共產主義者들은 相對方에 전달할 重要 「메시지」나 알려야 할 어떤 變動이 있을 때에는 지극히 짧고 간결한 用語를 使用한다. 또한 그 누구도 解放시키지 않는 『民族解放戰爭』이나 전혀 社會主義的이 아닌 『社會主義』國家들, 또는 「호루시초프」나 그 후계자들에게만 非正常的으로 보이는 西「베를린」의 『非正常的事態』와 같은 共產主義者들의 表現이 美國의 語意속에 침투, 語意上的 混亂을 야기토록 許用해서도 안된다.

「모슬리」는 美國人들이 露語나 中國語를 해독하여 번역의 朦朧한 「베일」에서 생기는 장애를 받지 않고 協議過程을 原語대로 추적할 수 있는 사람을 한명 농반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고 시사했다. 또한 英語단어가 露語에선 다른 뜻을 意味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例를 들면 英語의 『강인한 또는 積極的 政策』(Rigorous or Aggressive Policy)은 露語에서는 『威脅的인』 政策을 意味하므로 수사학적으로 잘못 취급되면 協商의 全過程이 붕쇄될 수도 있다.

(4) 共產主義者들의 苛烈한 言動에 대비하되 두려워하지는 말라. 「케난」은 『相對方이 不決한 感情을 갖거나 意見差異를 공개하는 것을 겁내지 말라』고 충고했다. 『蘇聯人들은 소동과 취문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만일 그들이 그들의 어느 누가 그것을 꺼려 그것을 피하려고 비상한 努力을 할 것임을 알면 그들은 이를 한 형태의 공갈로 利用하려 한다』 「이클레」는 共產主義者들의 주장을 『不諱의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촉구했다. 美國協商者들은 모두가 너무나 자주 『共產側에 수락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提案은 미리 내놓지 않을 것이다. 「이클레」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協商者와 政策 입안자들은 事實上 우리 提案을 수락되지 않게 만들고 있다』고 主張한다. 『우리 政府와 마찬가지로 共產主義政府의 立場은 協商의 영향하에서 다만 점진적으로 變更되는 傾向이 있기 때문에 「수락될 수 없는 要求」를 미리 삼가는 것이 共產主義者들의 立場을 수정할 可能性을 배제해 버리고 만다』

(5) 언제나 인내심을 발휘하고 또 어느 때 行動을 취해야 하는지를 알아라.

「모슬리」에 따르면 『協商을 시작하는 가장 유일한 効果적인 方法은 조바심과 눈도보다는 強刀하나 억제된 感情을 지니는 것』이라 한다. 「케난」은 『만일 그들이 그들의 相對者가 恫情을 試圖, 忍耐의 確固한 限界를 設定하고 또 그같은 限界가 조금이라도 침해를 받을 때는 서슴치 않고 중대한 조처를 취할 것임을 안다면 그들은 조심성있고 신중한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蘇聯人들은 相對方의 낮은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 어조의 완강도를 측정할 것이라고 「모슬리」는 보고했다. 『그같은 「뉴앙스」들은 그들의 反應에 強力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한다. 「케난」은 또한 『얼빠진 好意의 「제스처」를 쓰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런 「제스처」는 그들의 計算을 뒤집어 얹어 여러 計算間의 均衡을 깨고 말것이라 한다. 『우리가 要求를 내놓아 그 要求가 그들에게 수락되지 않을 경우, 그들로 하여금 實際적으로 우리의 不快感을 알게 할 態勢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런 要求도 내놓지 마라』 그러나 共產側이 아무런 恫嚇 訓令도 받지 않았고 宜傳敍를 展開하는 것이 바로 지금 분명하다면 우리에게 남아 있는 유일한 方法은 協商進行을 中斷시키는 것이라고 「영」과 「모슬리」는 主張하고 있다. 「케난」은 때로는 더욱 兇惡을 強調하는 것도 必要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兇惡이 보다 広範한 外交政策源에서 發見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深刻한 衝突을 準備하기 始作해야 한다』 「영」은 이것을 『報復協商』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分明하고 特殊하며 스스로 強發하는 相互的인 妥協을 追求한다. 「이글레」의 見解에 따르면 『美國協商者들은 英터리 변호사처럼 集中적으로 세부사항에만 매달려서는 안되며 基本目的을 그들의 戰術的인 제목면의 제목로 바쳐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6) 共產主義者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얻어내라. 「모슬리」는 成功이 不可能한 것이 確實할 때는 相對方에 壓力을 가하지 말라고 警告한다. 「그는 蘇聯協商者들은 合意에 도달키 위

한 어떤 壓力 밑에서도 그들이 그들 훈령의 미소한 또는 중대한 部分을 어기게 될까 전전긍긍하는 공포 狀態에 있으며 그들이 그들 草案의 모든 項目과 用語를 모두 관찰시킬 수 없음을 「모스크바」에 報告하기를 지극히 망설이고 있음을 보여 준다는 것을 有念해야 한다」

그같은 境遇 變更을 꾀하는 提案을 내놓으면 그것은 그들에게 중대한 威脅이 된다.

「유럽」 諮問委員會會議의 境遇와 마찬가지로 美國은 때때로 蘇聯人들에게 그들 本國 政府에 協議할 수 있는 機會와 그들이 繼續 질 질 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懷疑를 없앨 機會를 제공해 줄 구실을 마련해야 한다. 「케난」은 美國 協商者들에게 問題를 蘇聯 協商者들을 제쳐 놓고 그들의 最高指導者들에게 들고 가지 말라고 囑고 한다.

이와는 달리 美國 協商者들은 蘇聯 代表들에게 問題들에 대해 그들의 水準에서 充分한 책임을 질 것을 추구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어기지 않도록 努力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指導者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그들의 官僚體制에 「사보타주」의 질만을 일으킬 뿐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7) 相對者와 『사이좋은 행위』를 하지 말라. 「케난」은 蘇聯 管理들을 『外國人과 절친한 친구』가 되어 그들 自身의 人民들 앞에 나가는 것에 뿌리 깊은 공포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던」은 美國人들의 知的關係에 대한 갈망을 中國人들과 연결시켜

말하고 있다.

그는 板門店에서 美國의 전형적인 관행에 따라 中共代表들과 協商 「테이블」에서 벗어나 緊張을 풀고 意圖을 나누려 애썼다. 그러나 그와 「워싱턴」의 그의 상관들은 모두 中共代表들이 이를 거부한데 크게 실망했었다.

(8) 個人的인 것이든 公的인 것이든간에 美國의 모든 行動을 조정하라. 蘇聯人들은 『우리 政府委員이나 國民들의 박공식적인 목적의 추구와 의견 갈등, 不和등을 利用하는 데 지극히 민첩하다』고 「케난」은 지적했다. 그들 體制는 획일적이고 규율이 강하다.

結局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집중시키기 위해 可能的 온갖 힘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날에 効果的으로 대처할 수 없다』

上記의 것을 綜合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一般的인 결론이 부각될 수 있다.

첫째, 分類할 수 있는 規則의 결여 그 自体는 共產·自由 두 世界가 아직도 서로를 探索하는 比較的 초기단계에 놓여 있다는 事實을 반영한다. 그들의 協同類型은 그들간의 두드러진 關係가 여전히 큰 간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형성되어 가는 단계에 있다. 現段階에서 일정 規則을 통해 더욱 確固한 어떤 것이 設定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훨씬 現實主義에서 출발하게

될 것이다.

둘째, 西万은 蘇聯과 協商은 하나의 技術 즉 政治的인 技術이라는 데 거의 見解를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協商的의 未完成的인 性格과 그 不確實性을 表現하는 진정한 方法이며 目前에 많은 변화와 혁신이 가로 놓여 있음을 지적해 준다. 協商者가 이미 協商節次의 유일한 『技術者』가 아니라 할 때 그의 技術과 이 指針에 대한 理解는 여전히 重要하다.

세계 (가장 중요함) 共產・自由世界間의 協商은 軍事的인 對決이나 충돌 可能性을 包含하는 힘의 對用物이라는 어떤 分明한 確信도 제시치 않고 있다. 심지어 過去의 세련된 協商類型의 絶頂期에서도 戰爭은 있었다는 事實을 명심해야 한다.

協商이 어떤 힘이나 權力 및 의지의 計算에 依存하지 않는다고 假定하거나 實際로 그렇게 될 때 그것은 다른 기능과 결과를 지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時期는 實際로 예상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극히 멀다. 協商行爲는 그 時期를 앞당길는 지도 모르나 수락할 수 있는 紛爭의 形態가 紛爭을 繼續하는 手段이며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요인들이 그같은 時期의 도래를 延宕시킬 것이다.

그리고 協商過程 自体에서 어느 것이 成功的이며 어느 것이 成

功이 되지 못한가가 실험 규명될 때까지 아래와 같이 몇가지 基本적인 質問은 繼續 未解決로 남을 것이다.

(1) 새로이 고취되고 있는 이들 協商活動은 協商을 戰爭에 대치시키겠다는 그들의 주요 기대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인가? 過去의 經驗으로 비추어 보면 그것은 크게 의심스런 타이다.

(2) 만일 協商이 큰 戰爭에 對한 代案이라면 그것은 또한 '民族解放戰爭'과 같은 小規模 戰爭에 對한 代案도 될 것인가? 中共과 蘇聯의 修辭나 行動에는 그들이 그러한 見解를 취하고 있는 듯한 根拠가 거의 없다.

(3) 蘇聯의 軍事力 增強과 中共의 核力 開發에 비추어 볼 때 西方側이 갖고 있는 協商의 強點은 무엇인가? 西方側은 어떤 수락할 수 있는 代價를 支拂하고 共產側을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인가?

(4) 西方側과 共產側의 協商 모델은 정반대되는 것이 아닌가? 즉 西方側과 共產側이 '協商'이라는 用語를 쓸 때 그 意味가 같은 것인가? 적어도 理論上으로는 西方側이 말하는 協商과 共產側이 말하는 協商間에는 건너야 할 큰 差異가 있다.

(5) 각자의 協商모델과 經驗을 통해 西方側이 장차 共產側과 對座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무슨 指針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